

제 2장 생태계

한반도 육지부의 남단, 경상남도 남부연안의 중앙부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으며, 서로는 사천시, 남으로는 통영·거제시, 동북은 창원시, 서북으로는 진주시와 접하고 있다.

제 1절 지리적 특성

지맥은 동북에서 서남으로, 지세는 서북이 높고 동남이 기울은 편이며 큰 강이나 높은 산이 없어 무험순령하나 사방이 기복하고 하천은 균의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흐르고 있으며, 해안도서와 만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소하천변에 크고 작은 들이 조성되어 있는 농·어업의 적지이다.

제 2절 기후

지리상으로 한반도의 남부지역인 경남의 남부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과 서남일대는 바다에 임하고, 서·남·북은 육지인 반도지대로 해양성 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은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의 계절풍이 불어온다.

이러한 계절풍의 관계로 여름의 우기, 겨울의 건기가 확연히 구분된다.

자연생태계는 난·온대성 기후조건으로 남해안 특유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간섭, 오염 등 여러가지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자연히 급격히 훼손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정책이 훼손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존과 보전이 절실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생물종의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생태계란 다양한 생물종이 구성원으로 하나의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사회라고 할 때, 가능하면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을 줄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장기적인 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조사, 분석한 예가 없으므로 생물종 자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밀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 3절 식물상

표1. 목본류

과명	국명	학명
참나무과	가시나무	<i>Quercus myrsinaefolia</i> Bl.
감탕나무과	감탕나무	<i>Ilex integra</i>
참나무과	개가시나무	<i>Quercus gilva</i> Blume
운향과	개산초	<i>Zanthoxylum planispinum</i> Siebold & Zucc.
자작나무과	거제수나무	<i>Betula costata</i>
물푸레나무과	광나무	<i>Ligustrum lucidum</i> Aiton
장미과	국수나무	<i>Stephanandra incisa</i> (Thunb.) Zabel var. <i>incisa</i>
대극과	굴거리나무	<i>Daphniphyllum macropodum</i> Miq.
녹나무과	까마귀쪽나무	<i>Litsea japonica</i> Juss.
장미과	다정큼나무	<i>Raphiolepis indica</i> var. <i>umbellata</i> (Thunb.) Ohashi
두릅나무과	독활	<i>Aralia cordata</i> var. <i>continentalis</i> (Kitag.) Y.C.Chu
차나무과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L.
장미과	둥근잎다정큼나무	<i>Raphiolepis indica</i> var. <i>integerrima</i>
매죽나무과	매죽나무	<i>Styrax japonicus</i> Siebold & Zucc
차나무과	떡사스레피나무	<i>Eurya japonica</i> var. <i>aurescens</i>
협죽도과	마삭줄	<i>Trachelospermum asiaticum</i> var. <i>intermedium</i> Nakai
으름덩굴과	멸꿀	<i>Stauntonia hexaphylla</i> (Thunb.) Decne.
뽕나무과	모람	<i>Ficus nipponica</i> Fr. et Sav.
차나무과	백동백나무	<i>Lindera glauca</i> (Sieb. et Zucc.) Blume
팔꽃나무과	백서향	<i>Daphne kiusiana</i>

과명	국명	학명
협죽도과	백화등	<i>Trachelospermum asiaticum</i> var. <i>majus</i> (Nakai) Ohwi
버드나무과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Andersson
인동과	병꽃나무	<i>Weigela subsessilis</i>
참나무과	붉가시나무	<i>Quercus acuta</i> Thunb.
차나무과	사스레피나무	<i>Eurya japonica</i>
노박덩굴과	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a</i> Thunb.
층층나무과	산딸나무	<i>Cornus kousa</i> F. Buerger ex Miquel
운향과	산초나무	<i>Zanthoxylum schinifolium</i> S. et Z.
참나무과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CARRUTH
녹나무과	생강나무	<i>Lindera obtusiloba</i> Blume var. <i>obtusiloba</i>
녹나무과	생달나무	<i>Cinnamomum japonicum</i> Siebold
녹나무과	센달나무	<i>Machilus japonica</i> Siebold & Zucc.
소나무과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두릅나무과	송악	<i>Hedera japonica</i> Tobler
층층나무과	식나무	<i>Aucuba japonica</i> Thunb.
참나무과	신갈나무	<i>Quercus mongolica</i>
녹나무과	왕후박나무	<i>P. thunbergii</i> var. <i>obovata</i> Nakai
차나무과	우묵사스레피나무	<i>Eurya emarginata</i> (Thunb.) Makino
녹나무과	육박나무	<i>Actinodaphne lancifolia</i> (Siebold & Zucc.) Meisn.
자금우과	자금우	<i>Ardisia japonica</i> (Thunb.) Blume
소나무과	잣나무	<i>Pinus koraiensis</i> SIEB. et ZUCC.
참나무과	졸참나무	<i>Quercus serrata</i> Thunb. ex Murray
참나무과	종가시나무	<i>Quercus glauca</i> Thunb. ex Murray
노박덩굴과	줄사철나무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Sieb et Miq.)Rehder
참나무과	참가시나무	<i>Quercus salicina</i> Blume
녹나무과	참식나무	<i>Neolitsea sericea</i> (Blume) Koidz.
두릅나무과	팔손이	<i>Fatsia japonica</i> (Thunb.) Decne. & Planch.
녹나무과	후박나무	<i>Machilus thunbergii</i>

표2. 초분류

과명	국명	학명
장미과	가락지나물	<i>Potentilla anemonefolia</i> Lehm. Rosaceae
꼭두서니과	갈퀴덩굴	<i>Vicia amoena</i> Fisch. ex DC.
국화과	감국	<i>Chrysanthemum indicum</i> Linne
미나리아재비과	개구리자리	<i>Ranunculus sceleratus</i> L.
꼭두서니과	계요등	<i>Paederia scandens</i> var. <i>velutina</i> (Nakai) Nakai
마디풀과	고마리	<i>Persicaria thunbergi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고사리삼과	고사리삼	<i>Sceptridium ternatum</i> (Thunb.) Lyon
콩과	고삼	<i>Sophora flavescens</i> Solander ex Aiton
물레나물과	고추나물	<i>Hypericum erectum</i> Thunb.
국화과	골등골나물	<i>Eupatorium lindleyanum</i> DC.
국화과	구절초	<i>Dendranthema zawadskii</i> var. <i>latilobum</i> (Maxim.) Kitam.
난초과	금난초	<i>Cephalanthera falcata</i> (Thunb. ex A. Murray) Blume
가지과	까마중	<i>Solanum nigrum</i> L. var. <i>nigrum</i>
국화과	까실쑥부쟁이	<i>Aster ageratoides</i> Turcz. var. <i>ageratoides</i>
꿀풀과	꽃향유	<i>Elsholtzia splendens</i> Nakai
콩과	나비나물	<i>Vicia unijuga</i> A. Braun
제비꽃과	남산제비꽃	<i>Viola albida</i> var. <i>chaerophylloides</i> (Regel) F. Maek. ex Hara
콩과	낭아초	<i>Indigofera pseudotinctoria</i> Matsum.
용담과	노랑어리연꽃	<i>Nymphoides peltata</i> (J.G. Gmelin) Kuntze
제비꽃과	노랑제비꽃	<i>Viola orientalis</i> (Maxim.) W. Becker
미나리아재비과	노루귀	<i>Hepatica asiatica</i> Nakai
노루발과	노루발	<i>Pyrola japonica</i> Klentze ex Alef.
범의귀과	노루오줌	<i>Astilbe rubra</i> Hook. f. & Thomson var. <i>rubra</i>
답의장풀과	답의장풀	<i>Commelina communis</i> L.
콩과	땅비싸리	<i>Indigofera kirilowii</i> Maxim. ex Palib
마타리과	뚝갈	<i>Patrinia villosa</i> (Thunb.) Juss.

과명	국명	학명
마타리과	마타리	<i>Patrinia scabiosaefolia</i> Fisch. ex Trevir
마디풀과	며느리밀씻개	<i>Persicaria senticosa</i> (Meisn.) H.Gross ex Nakai var. <i>senticosa</i>
물봉선과	물봉선	<i>Impatiens textori</i> Miquel
미나리아재비과	미나리아재비	<i>anunculus japonicus</i> Thunb.
국화과	미역취	<i>Solidago virg-aurea</i> subsp. <i>asiatica</i> Kitam. ex Hara var. <i>asiatica</i>
산형과	바디나물	<i>Angelica decursiva</i> (Miq.) Franch. & Sav.
꿀풀과	배암차즈기	<i>Salvia plebeia</i> R. Br.
난초과	보춘화	<i>Cymbidium goeringii</i> (Rchb.f.) Rchb.f
부들과	부들	<i>Typha orientalis</i> C.Presl
콩과	비수리	<i>Lespedeza cuneata</i> G.Don
산형과	사상자	<i>Torilis japonica</i> (Houtt.) DC.
미나리아재비과	사위질빵	<i>Clematis apiifolia</i> DC.
꿀풀과	산골무꽃	<i>Scutellaria pekinensis</i> var. <i>transitra</i> (Makino) Hara
국화과	산국	<i>Dendranthema boreale</i> (Makino) Ling ex Kitam.
꿀풀과	산박하	<i>Isodon inflexus</i> (Thunb.) Kudo
백합과	산자고	<i>Tulipa edulis</i> (Miq.) Baker
꿀풀과	석잠풀	<i>Stachys japonica</i> Miq.
국화과	솜나물	<i>Tephrosieris kirilowii</i> (Turcz. ex DC.) Holub
석죽과	쇠별꽃	<i>Stellaria aquatica</i> (L.) Scop
속새과	쇠뜨기	<i>Equisetum arvense</i> L.
벽오동과	수까치깨	<i>Corchoropsis tomentosa</i> (Thunb.) Makino
꿀풀과	쉽싸리	<i>Lycopus lucidus</i> Turcz.
국화과	씀마귀	<i>Ixeridium dentatum</i> (Thunb. ex Mori) Tzvelev
현삼과	알며느리밥풀	<i>Melampyrum roseum</i> var. <i>ovalifolium</i> Nakai ex Beauverd
백합과	애기나리	<i>Disporum smilacinum</i> A. Gray

과명	국명	학명
양귀비과	애기똥풀	<i>Chelidonium majus</i> var. <i>asiaticum</i> (Hara) Ohwi
원지과	애기풀	<i>Polygala japonica</i> Houtt.
장미과	양지꽃	<i>Potentilla fragarioides</i> var. <i>major</i> Maxim.
백합과	얼레지	<i>Erythronium japonicum</i> (Balrer) Decne.
국화과	영경귀	<i>Cirsium japonicum</i> var. <i>maackii</i> (Maxim.) Matsum.
현호색과	염주괴불주머니	<i>Corydalis heterocarpa</i> Siebold & Zucc.
장미과	오이풀	<i>Sanguisorba officinalis</i> L.
국화과	왕고들빼기	<i>Lactuca indica</i> var. <i>laciniata</i> (Kuntze) H. Hara
미나리아재비과	으아리	<i>Clematis mandshurica</i> Ruprecht
난초과	은난초	<i>Cephalanthera erecta</i> (Thunb. ex Murray) Blume
난초과	은대난초	<i>Cephalanthera longibracteata</i> Blume
백합과	은방울꽃	<i>Convallaria keiskei</i> Miq.
국화과	이고들빼기	<i>Crepidiastrum denticulatum</i> (Houtt.) Pak & Kawano
꿀풀과	익모초	<i>Leonurus japonicus</i> Houtt.
인동과	인동덩굴	<i>Lonicera japonica</i> Thunb.
초롱꽃과	잔대	<i>Adenophora triphylla</i> var. <i>japonica</i> (Regel) H. Hara
제비꽃과	제비꽃	<i>Viola mandshurica</i> W. Becker
취방울덩굴과	족도리풀	<i>Asarum sieboldii</i> Miq.
앵초과	좁가지풀	<i>Lysimachia japonica</i> Thunb.
취꼬리망초과	취꼬리망초	<i>Justicia procumbens</i> L.
진달래과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var. <i>mucronulatum</i>
질경이과	질경이	<i>Plantago asiatica</i> L.
진달래과	찔레꽃	<i>Rosa multiflora</i> Thunb. var. <i>multiflora</i>
국화과	참취	<i>Aster scaber</i> Thunb.
천남성과	천남성	<i>Arisaema amurense</i> Maximowicz var. <i>serratum</i> Nakai

과명	국명	학명
백합과	청미래덩굴	<i>Smilax china L.</i>
꿀풀과	층층이꽃	<i>Clinopodium chinense var. grandiflora (Maxim.) Kitag.</i>
콩과	취	<i>Pueraria lobata (Willd.) Ohwi</i>
앵초과	큰까치수영	<i>Lysimachia clethroides Duby</i>
국화과	큰엉경귀	<i>Cirsium pendulum Fisch. ex DC.</i>
천남성과	큰천남성	<i>Arisaema ringens (Thunb.) Schott</i>
국화과	털진득찰	<i>Sigesbeckia pubescens Makino</i>
현삼과	토현삼	<i>Scrophularia koraiensis Nakai</i>
파리풀과	파리풀	<i>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Hara</i>
미나리아재비과	할미꽃	<i>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i>
현호색과	현호색	<i>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i>

가락지나물 *Potentilla anemonefolia* Lehm. Rosaceae

전국 각지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면 토양이 척박해도 잘 자란다. 키는 20~60cm이고, 잎은 뿌리에서 나온 잎은 3개씩 줄기에 달리고 작은 잎은 길이는 1~5cm이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으며, 표면에는 털이 성글게 있고 뒷면에는 복모가 있고 폭은 0.8~2.0cm이다. 줄기는 하반부가 비스듬히 자라며 잎겨드랑이에서 가지가 옆으로 뻗고 끝이 위를 향하며 위로 향한 털이 있다. 꽃은 줄기나 가지 끝에 황색으로 달리고, 꽃잎은 5장으로 수술과 암술이 많으며, 지름은 0.8~1.0cm이다. 열매는 6~7월경에 달리고 길이는 약 0.1cm로 털이 없으며 난형이고 황갈색이다.

갈퀴나물 *Vicia amoena* Fisch. ex DC.

각처에서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의 경사지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80~180cm이고, 잎은 어긋나고 작은 잎은 길이는 1.5~3.0cm, 폭은 0.4~1.0cm이고 긴 타원형이거나 피침형이며, 엽축 끝에 2~3개로 갈라진 덩굴손이 있다. 꽃은 홍자색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며 피고 길이는 1.2~1.5cm이다. 꽃받침은 종형으로서 5개의 불규칙한 조각으로 갈라지며 밑부분의 것이 가장 길고 꽃받침통보다 짧거나 같다. 열매는 8~9월경에 길이 2.0~2.5cm, 폭은 0.5cm로 긴 타원형이며 검고 둥근 종자가 들어 있다.



가락지나물



갈퀴나물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inne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30~80cm이고, 잎은 길이는 3~5cm, 폭이 2.5~4cm이며 새의 날개처럼 깊게 갈라지고 끝에 톱니가 있다. 꽃은 황색으로 줄기와 가지 끝에 펼쳐지듯 뭉쳐 달리며 지름은 2.5cm 정도이다. 열매는 12월경에 달리고 작은 종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개구리자리 *Ranunculus sceleratus* L.

중부 이남의 논이나 개울에서 자라는 월년초이다. 생육환경은 물기가 많고 광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50cm이고, 잎은 긴 잎자루가 있고 잎몸은 길이가 1~4cm로 3갈래로 갈라지며 옆으로 갈라진 2개의 잎 끝에 둔한 톱니가 있다. 줄기는 털이 없고 매끈하며 광택이 나고 속은 비어있다. 꽃은 원줄기나 가지 끝에 황색으로 한송이씩 달리고 지름은 0.6~0.8cm이다. 열매는 7~8월경에 달리며 길이 0.1cm 정도의 작은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감국



개구리자리

계요등 *Paederia scandens* var. *velutina* (Nakai) Nakai

충청 이남의 산지에서 자라는 덩굴성 식물이다. 생육환경은 산지의 양지바른 곳이나 골짜기에 자생한다. 덩굴길이는 5~7m가량으로 긴 편이며, 잎은 길이는 5~12cm, 폭은 1~6cm로 잎 끝은 약간 뾰족하며 난형이다. 꽃은 흰색이며 길이는 1~1.5cm, 폭은 0.4~0.6cm이고 등근 안 쪽에는 자주색이 선명하게 있다. 열매는 9~10월경에 둥글고 황갈색으로 달리고 지름은 0.5~0.6cm 정도이다.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각처에서 자라는 덩굴성 1년생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바른 곳이나 반양지에서 잘 자란다. 키는 약 1m 정도이고 잎은 표면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짧은 녹색털이 있고 길이는 4~7cm, 폭은 3~7cm로 창처럼 앞이 뾰족하다. 꽃은 가지 끝에 10~20개 정도가 뭉쳐서 피고 꽃받침은 백색바탕 끝에 붉은 색 빛이 도는 것과 흰빛이 도는 것이 있다. 열매는 8~9월경에 황갈색으로 달린다.



계요등



고마리

고사리삼 *Sceptridium ternatum* (Thunb.) Lyon

제주, 지리산, 덕유산, 경남, 경북, 강원, 경기도 일대의 높은 산에 자생하는 다년생 양치류이다. 생육환경은 습기가 많고 토양이 비옥한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약 50cm 이고, 잎은 두꺼우며 광채가 있고 영양잎은 잎자루가 3갈래로 갈라지며 길고, 끝에 톱니가 있다. 포자가 있는 잎은 영양잎보다 길고 가지에 빨모양으로 된 길이 5cm 정도의 좁쌀과 같은 포자낭이 달린다. 열매는 9~11월에 달리고 각 가지에 좁쌀 같은 포자낭이 있다.

고삼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토양은 부엽질이 풍부하며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m 정도이고, 잎은 줄기에 15~40여 개의 작은 잎들이 달려 있고 길이가 15~25cm이며 작은 잎은 길이는 2~4cm, 폭은 0.7~1.5cm로 긴 난형이고 표면과 뒷면에는 털이 있다. 줄기는 검은 빛이 돌고 윗부분에서 가지를 친다. 뿌리는 황갈색으로 굵으며 맛이 매우 쓰다. 꽃은 연황색으로 원줄기 끝과 가지에 길이 1.5~1.8cm가량의 많은 꽃이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길이 7~8cm, 폭 약 0.8cm로 안에는 밤갈색으로 둥글며 지름이 약 0.5cm가량 되는 종자가 들어 있다.



고사리삼



고삼

고추나물 *Hypericum erectum* Thunb.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식물이다. 생육환경은 주변에 습기가 많고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키는 20~60cm이고, 줄기는 둥글고 가지가 갈라지며 자란다. 잎은 길이는 2~6cm, 폭은 0.7~3cm이고, 끝부분이 둔한 모양을 한 피침형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가지 끝에서 뭉쳐서 달리고 지름은 1.5~2cm 정도이다. 열매는 10월경 달걀 모양으로 달리고 안에는 많은 종자가 들어 있다.

골등골나물 *Eupatorium lindleyanum* DC.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척박한 땅이나 비옥한 땅 모두에서 잘 자란다. 키는 70cm정도이며 줄기에는 거친 털이 많이 나있다.

잎은 피침형으로 다. 잎의 길이는 6~12cm, 폭은 0.8~2cm이고 양면에는 털이 있으며, 아래에서 3갈래로 갈라지고 가운데 잎만 크고 나머지는 적고 불규칙한 톱니가 나 있다. 꽃은 연한 자주색이며 지름은 6~9cm정도이고 줄기 끝에 조그마한 꽃들이 뭉쳐 달린다. 열매는 10~11월경에 원추형으로 달리고 종자 끝에는 흰색 갯털이 있다.



고추나물



골등골나물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m.

각처의 산지에서 많이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산의 등산로 부근이나 양지 바른 곳 혹은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50~100cm 정도되며, 잎은 난형으로 잎의 가장자리가 얇게 갈라지며, 길이는 4~7cm, 폭은 3~5cm이다. 꽃은 흰색이며 향기가 있고 줄기나 가지 끝에서 한송이씩 피고 한 포기에서는 5송이 정도 핀다. 처음 꽃대가 올라올 때는 분홍빛이 도는 흰색이고 개화하면서 흰색으로 변한다. 꽃의 지름은 6~8cm정도이다. 열매는 10~11월에 이루어진다.

금난초 *Cephalanthera falcata* (Thunb. ex A. Murray) Blume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다년생초식물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쪽에서 잘 자란다. 키는 40~70cm, 잎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는 8~15cm, 폭은 2~4cm정도이다. 꽃은 황색이며 정상부에 3~12개 정도 달리고, 둘러싸고 있는 잎은 길이 2mm정도의 삼각형이다. 꽃받침 잎은 타원형이고 길이 1.4~1.7cm로 끝이 둔하다. 열매는 7~8월경에 갈색이며 긴 타원형으로 달리고 먼지 같은 작은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구절초



금난초

까마중 *Solanum nigrum* L. var. *nigrum*

각처의 밭이나 길가에서 자라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와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20~90cm이고, 잎은 길이가 6~10cm, 폭은 4~6cm로 난형이며 어긋난다. 꽃은 백색이고 지름은 약 0.6cm이고 작은 꽃줄기가 있으며 정상부에 3~8송이가 달린다. 열매는 9~11월경에 등글며 검게 달린다.

까실쑥부쟁이 *Aster ageratoides* Turcz. var. *ageratoides*

각처의 산이나 들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특성은 반그늘과 양지에서 자생하며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키는 1m 내외이고, 잎은 긴 타원형이며 잎 끝에는 톱니와 자주색을 한 모양의 띠가 있다. 잎의 길이는 10~14cm이며 표면이 거칠고, 줄기위로 올라 갈수록 잎이 작아진다. 꽃은 연한 자주색과 연한 보라색으로 피며, 지름은 약 2cm정도이다. 열매는 10~11월에 달리고 타원형이며 털이 있다.



까마중



까실쑥부쟁이

꽃향유 *Elsholtzia splendens* Nakai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자생하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 풀숲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50cm이고, 잎은 가장자리에 이 모양의 둔한 톱니가 나 있으며, 길이는 8~12cm 정도이다. 꽃은 분홍빛이 나는 자주색으로 꽃은 줄기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서 피고, 길이는 6~15cm이다. 열매는 11월에 달리고 꽃봉오리가 진자리에서 작고 많은 씨가 있다.

나비나물 *Vicia unijuga* A. Braun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풀숲이나 광이 잘 들어오는 경사진 곳의 부엽질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100cm이고, 잎은 길이는 3~8cm, 폭은 2~4cm로 한 쌍의 작은 잎이 어긋나며 끝이 길게 뾰족해진다. 줄기는 약간 비스듬히 자라고 원줄기는 능선으로 인해 네모진다. 꽃은 홍자색으로 길이는 1.2~1.5cm로 나비모양으로 잎겨드랑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며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길이가 약 3cm 정도 되며 완두콩과 유사하게 닮았다.

남산제비꽃 *Viola albida* var. *chaerophylloides* (Regel) F. Maek. ex Hara

전역의 산과 들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음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자란다. 키는 10~15cm이고, 잎은 3개로 완전히 갈라지며 옆에서 있는 것은 다시 2개로 갈라져 새발모양을 하며 뿌리부분에서 나온다. 꽃은 백색으로 잎 사이에서 꽃줄기가 나와 1개씩 달린다. 열매는 7~8월경에 타원형으로 달린다.

낭아초 *Indigofera pseudotinctoria* Matsum.

남부의 낮은 지대나 해안가에 자라는 낙엽 반관목이다. 생육환경은 저지대의 따듯한 곳에서 생육한다. 키는 약 2m 정도이며, 잎은 깃꼴겹잎으로 긴 타원형으로 길이는 0.8~2cm, 폭은 0.5~1cm이다. 잎 끝은 가시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이 밋밋하다. 꽃은 옅은 홍색 또는 흰색의 나비 모양을 하고 있고, 곁가지에서 나오는 꽃의 길이는 4~12cm이다. 열매는 10월에 달린다.

노랑어리연 *Nymphoides peltata* (J.G.Gmelin) Kuntze

각처의 연못과 늪에서 자라는 다년생 수초이다. 생육환경은 물이 깊지 않고 오래 고여 있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10~15cm이고, 잎은 지름이 5~10cm로 난형이고 밑부분이 2개로 갈라

지며 물 위에 뜨는 잎은 수련 잎과 비슷하게 윤기가 나고 뒷면은 갈색을 띤 보라색이 돈다. 꽃은 밝은 황색이고 지름은 3~4cm로서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길이 약 0.3cm 정도의 타원형으로 달린다.

노랑제비꽃 *Viola orientalis* (Maxim.) W. Becker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과 양지에서 잘 자라며 고산지대에서는 바위틈이나 양지쪽에서 자란다. 키는 10~18cm이며, 잎은 난형 심장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길이는 7~12cm이며, 표면은 윤기가 있고, 뒷면은 갈색을 띤다. 꽃은 노란색이고 줄기 끝의 두터운 잎 사이로 2~3송이가 달리고, 뒷면은 약한 자주색 빛이 있다. 열매는 8~9월경에 달리고 난상 타원형으로 털이 없다.

노루귀 *Hepatica asiatica* Nakai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특성은 나무 밑에서 자라며 토양은 비옥하고 양지식물이다. 키는 9~14cm이고, 잎은 길이는 5cm이고, 3갈래로 난 잎은 난형이며 끝이 둔하고 솜털이 많이 나있다. 꽃은 흰색, 분홍색, 청색으로 꽃줄기 위로 한 송이가 달리고 지름은 약 1.5cm 정도이다. 열매는 6월에 달린다.

노루발 *Pyrola japonica* Klenze ex Alef.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상록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의 낙엽수 아래에서 자란다. 키는 약 25cm 내외이고, 잎은 길이는 5~7cm, 폭은 3~5cm이고 밑동에서 뭉쳐서 나며 넓은 타원형이다. 꽃은 백색이고 길이는 10~25cm, 지름은 1.2~1.5cm로 윗부분에 2~12개 정도의 꽃이 무리지어 달리며 능선이 있고 1~2개의 비늘과 같은 잎이 있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고 흑갈색으로 이듬해까지 남아 있다.

노루오줌 *Astilbe rubra* Hook. f. & Thomson var. *rubra*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산지의 숲 아래나 습기와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60cm 내외이고, 잎은 넓은 타원형으로 끝이 길게 뽕족하며, 잎 가장자리가 깊게 패어 들고 톱니가 있으며 길이는 2~8cm이다. 꽃은 연한분홍색으로 길이가 25~30cm 정도이다. 열매는 9~10월에 달리며 갈색으로 변한 열매 안은 미세한 종자들이 많이 들어 있다.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L.

각처의 들에서 흔히 나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15~50cm이고, 잎은 길이가 5~7cm, 폭은 1~2.5cm로 어긋나고 뽕족하다. 꽃은 하늘색으로 포에 싸여 있고 포는 길이가 2cm로 심장형으로 안으로 접히고 끝이 뽕족해지며 곁에 털이 있거나 혹은 없다. 열매는 9~10월경에 타원형으로 달린다.

땅비싸리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각처의 산에서 나는 낙엽관목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토양 비옥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m 정도이고, 잎은 길이가 1~4cm로 작은 잎이 7~11개 정도가 있으며 타원형이다. 꽃은 옅은 홍색으로 길이가 약 2cm이고 잎겨드랑이에 달린다. 열매는 10월경에 원주형으로 달린다.

뚝갈 *Patrinia villosa* (Thunb.) Juss.

전역의 산과 들에서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양지쪽의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m이고, 잎은 길이는 3~15cm이고 마주나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흰빛이 돌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고 양면에는 백색털이 드물게 있으며 마주난다. 꽃은 백색으로 원줄기 끝이나 가지 끝에서 달리며 꽃줄기 분지에서는 아래로 퍼지거나 밑을 향해 있는 털이 있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으로 뒷면이 둥글게 달린다.

마타리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 ex Trevir

각처의 산과 들에서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60~150cm이고, 잎은 새의 깃 모양으로 깊이 갈라지고 마주난다. 꽃은 황색이고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리며 지름 약 0.5cm가량 되는 꽃들이 많이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타원형으로 길이가 약 0.5cm 정도 되는 종자가 달린다.

며느리밑씻개 *Persicaria senticosa* (Meisn.) H.Gross ex Nakai var. *senticosa*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덩굴성 1년초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좋은 곳이면 어디서든 자란다. 키는 약 1~2m이고, 잎은 어긋나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심장형으로 길이와 폭이 각

각 4~8cm이고 줄기에는 갈고리와 같은 가시가 아래로 나 있다. 줄기에는 붉은 빛을 띤 갈고리와 같은 가시가 촘촘히 나있다. 꽃은 연한 홍색이지만 끝 부분은 적색으로 줄기나 가지 꼭대기에 달린다. 열매는 9월경에 검고 광택이 많이 나며 달린다.

물봉선 *Impatiens textori* Miquel

각처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습기가 많은 곳이나 계곡 근처의 물이 빨리 흐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60cm 내외이고, 잎은 난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길이는 6~15cm 정도이다. 꽃은 홍자색으로 꽃자루가 길게 뻗어 있으며, 자주색 반점이 있고 끝이 안으로 말리고 아랫부분에 붉은 선모와 작은 포가 있다. 유사한 종으로는 “미색물봉선”, “흰물봉선”, “노랑물봉선”, “가야물봉선” 등이 있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잎과 줄기는 약용으로 쓰인다.

미나리아재비 *Ranunculus japonicus* Thunb.

우리나라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의 약간 건조한 땅에서 자란다. 키는 50~70cm이고, 잎은 길이는 2.5~7cm, 폭이 3~10cm로 뭉쳐서 나고, 잎자루는 길고 오각상 원심장형으로서 3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다. 꽃은 짙은 노란색으로 줄기 끝에 여러 송이가 붙어서 핀다. 열매는 8~9월경에 길이가 2~2.5mm 정도로 달리고 약간 편평하며 끝에 짧은 돌기가 있다.

미역취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 ex Hara var. *asiatica*

각처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과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80cm이고, 잎은 표면은 녹색이고 약간 털이 있으며, 뒷면은 옅은 녹색이며 털이 없다. 잎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길이는 7~9cm, 폭 1.5~5cm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3~5개 정도의 꽃이 뭉쳐서 핀다. 열매는 11월에 달리고, 씨방 끝에 솜털과 같은 털이 있으며 길이는 3.5mm 정도이다.

바디나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 Sav.

각처의 산이나 들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양지와 반그늘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80~150cm 이고, 잎은 삼각상 넓은 난형으로 깃꼴겹잎이다. 잎의 길이는 5~10cm 이고, 결각모양의 톱니와 예리한 톱니가 있

다. 꽃은 짙은 자주색이나 흰색으로 줄기 위와 잎 사이에서 핀다. 열매는 10~11월경에 달리고 길이가 5mm이며 편평한 타원형이다.

배암차즈기 *Salvia plebeia* R. Br.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 습한 곳에서 자라는 2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주변의 습한 도랑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70cm가량이고, 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이 둔하고 밑은 뾰족하다. 잎 가장자리에는 둔한 톱니가 있고, 양면에 잔털이 드물게 나 있으며, 길이는 3~6cm가량이다. 꽃은 연한 보라색으로 길이는 4~5mm이고 줄기 윗부분과 잎 사이에서 난다. 열매는 짙은 갈색으로 타원형이다.

보춘화 *Cymbidium goeringii* (Rchb.f.) Rchb.f

남부와 중남부 해안의 삼림 내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자생하는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 집단적으로 자라며 최근에는 내륙에서도 많은 자생지가 관찰된다. 꽃대 길이는 10~25cm, 잎 길이는 20~50cm 정도이고, 잎은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미세한 톱니가 있으며 가죽처럼 질기며 진록색이 나고 길이는 20~50cm, 폭은 0.6~1cm로 뿌리에서 나온다.

꽃은 백색 바탕에 짙은 홍자색 반점이 있으며 인쪽은 울퉁불퉁하고 중앙에 홈이 있으며 끝이 3개로 갈라지고 길이는 3~3.5cm 가량되고 연한 황록색이다. 꽃은 뿌리하나에 꽃이 하나씩 달리는 1경 1화이다. 열매는 6~7월경에 길이 약 5cm 정도로 달리고 안에는 먼지와 같은 종자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다.

보춘화는 생육환경 및 조건에 따라 잎과 꽃의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품종이다.

부들 *Typha orientalis* C.Presl

전국적으로 습지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습지와 도심 주변의 습지에서 자란다. 키는 1~1.5m이고, 잎은 밑부분이 원줄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으며 길게 위로 올라오며 길이는 80~130cm, 폭은 0.5~1cm로 털이 없다. 꽃은 암꽃은 길이가 3~10cm이고 윗부분에 달리며 씨방에 대가 있고 암술머리는 주걱과 비슷하다. 수꽃은 황색으로 밑부분에는 수염과 같은 털이 있다. 열매는 11월경에 달리며 길이가 7~10cm로 적갈색이며 핫도그와 같은 형태이다.

비수리 *Lespedeza cuneata* G. Don

전국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 혹은 초본성 아관목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란다. 키는 약 1m이고, 잎은 어긋나고 잎 표면에는 털이 없으며 뒷면에 잔털이 있고 길이는 1~2cm, 폭은 0.2~0.4cm이다. 줄기는 가늘게 위로 올라가며 잔털이 많이 있다. 꽃은 잎보다 짧게 잎몸에 붙어 백색으로 핀다. 열매는 암갈색으로 10월에 달리고 안에는 황록색 바탕에 적색 반점이 있는 1개의 씨가 들어 있다.

사상자 *Torilis japonica* (Houtt.) DC.

우리나라 각처의 들에서 나는 2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물 빠짐이 좋은 부엽질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70cm이고, 잎은 길이는 5~10cm이고 끝은 뾰족하고 잎몸 밑부분은 넓어져 원줄기를 감싸 안으며 어긋난다. 줄기는 윗부분에서 곁가지로 내고 가는 홈 줄이 있다. 꽃은 백색이고 줄기 끝이나 가지 끝 윗부분에서 피며 5장의 꽃잎이 있다. 작은 꽃가지는 5~9개정도이고 6~20개의 작은 꽃들이 달리며 길이는 1~3cm이다. 열매는 9~10월경에 길이 약 0.3cm 정도로 달리고 짧은 가지 같은 털이 있어서 다른 물체에 잘 붙는다.

사위질빵 *Clematis apiifolia* DC.

우리나라 각처의 산록에서 자라는 낙엽 덩굴나무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이 비옥하고 반그늘이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자란다. 길이는 약 3m이고, 잎은 길이는 4~7cm이고 작은 잎은 난형이고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가 있다. 꽃은 우산모양으로 펼쳐지듯 피고, 꽃자루 길이가 약 5~12cm이고 지름이 약 2cm 가량으로 흰색이며 잎 사이에서 나온다. 열매는 9월에 달리고 길이가 1cm 정도의 백색 또는 연한 갈색 털이 있다.

산골무꽃 *Scutellaria pekinensis* var. *transitra* (Makino) Hara

각처의 산지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높고 광이 잘 들어오는 양지 혹은 반양지에서 잘 자란다. 키는 15~30cm 가량되고, 잎은 양면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길이는 2~4cm, 폭은 1.5~2.5cm로 어긋난다. 꽃은 줄기 윗부분에 1개씩 달려 모두 한쪽 방향을 향하며 화서 길이는 3~6cm이고 입술모양으로 끝이 갈라지고 위입술 모양은 아랫입술 모양 길이의 1/2정도이며 아랫입술은 3갈래로 갈라지고 연한 자주색으로 달린다. 열매는 7~8월경에 둥근 통과 같은 곳 안에 종자가 들어 있다.

산국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은 부엽질이 많고 햇볕이 들어오는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1~1.5m이고, 잎은 난형으로 감국의 잎보다 깊이 갈라지며 날카로운 톱니가 있으며 길이는 5~7cm이다. 꽃은 줄기 끝에서 노란색으로 달기고 지름이 약 1.5cm 정도된다. 열매는 11~12월경에 달린다.

산박하 *Isodon inflexus* (Thunb.) Kudo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m이고, 잎은 난형이며 톱니가 있으며 길이는 3~6cm, 폭은 2~4cm이다. 꽃은 하늘색으로 줄기 위에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핀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린다.

산자고 *Tulipa edulis* (Miq.) Baker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과 들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쪽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20cm이고, 잎은 회록색으로 길이는 15~30cm, 폭은 0.4~0.5cm이고, 2장이 뿌리에서 나오며 끝이 날카롭다. 꽃은 흰색으로 지름은 1cm 내외이고, 넓은 종 모양으로 줄기 끝에 1송이 달리고, 꽃잎 뒷부분은 자주색 선이 선명하고 개화하기 전에는 붉은 색 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열매는 7~8월경에 삼각형으로 달린다.

석잠풀 *Stachys japonica* Miq.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숙근성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60cm이고, 잎은 길이가 4~8cm, 폭은 1~2.5cm, 잎자루 길이가 0.5~1.5cm 이고 마주나며 끝은 뾰족하다. 꽃은 연한 홍색으로 줄기와 잎 사이에 돌아가며 피고 길이는 1.2~1.5cm이다. 열매는 10월경에 달린다.

숨나무 *Leibnitzia anandria* Nakai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토양 비옥도에 상관없이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다. 키는 10~20cm이고, 잎은 길이는 5~15cm 정도이고 표면은 광이 많이 나며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작은 점모들이 나 있다. 이른 봄 잎이 올라올 때는 가는 섬모

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따뜻해지면 서서히 섬모가 없어지는 모양이다. 꽃은 흰색으로 가지 윗부분에서 피며 뒷면에는 홍자색으로 되어 있다. 열매는 7~9월경에 달리고, 종자는 갈색이다.

솜방망이 *Tephrosia kirilowii* (Turcz. ex DC.) Holub

전국 양지바른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비교적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 부엽질이 많은 양지 바른 곳에서 군락을 이룬다. 키는 20~60cm 정도로 큰편이며, 잎은 길이는 5~10cm, 폭은 1.5~2.5cm이며 여러 겹으로 되어 개화기까지 남아 있고 긴 타원형으로 잎 양면에 많은 솜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솜방망이” 라고 한다. 꽃은 노란색으로 지름이 3~4cm 정도로 줄기 끝에 3~9개정도가 달린다. 열매는 7~8월경에 길이가 2.5mm이며 원통형으로 털이 촘촘히 있다.

쇠별꽃 *Stellaria aquatica* (L.) Scop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2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광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20~50cm이고, 잎은 길이는 1~6cm, 폭이 0.8~3cm로 마주난다. 꽃은 백색으로 잎이 달려있는 가지 끝에 달리고 꽃이 시들면 처진다. 열매는 6~7월경에 달리고 난형이며 종자는 편평하다.

쇠뜨기 *Equisetum arvense* L.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나 양지 바른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40cm이고, 생식경은 이른 봄에 나와 줄기 끝에 마치 아과트와 같은 모양으로 포자낭수를 형성한다. 영양경은 속이 비어 있고 비스듬히 자라다가 지상에서 곧게 서며 세로로 모가 나 있다.

수까치깨 *Corchoropsis tomentosa* (Thunb.) Makino

경기도 이남의 산과 들에서 나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약 60cm이고, 잎은 길이가 4~8cm, 폭은 2~4.5cm로 난형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황색이고 지름이 1~1.5cm로 잎겨드랑이에 1송이씩 달리며 작은 꽃줄기는 길이가 1.5~3cm이다. 열매는 10~11월경에 길이가 3~4cm, 지름이 0.3cm인 난형으로 달린다.

십싸리 *Lycopus lucidus* Turcz.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낙엽수가 있는 반그늘이나 양지쪽에서 자란다. 키는 1m 정도로 자라는 비교적 큰 식물이고, 잎은 길이가 2~4cm, 나비는 1~2cm이고, 잎자루가 없이 옆으로 퍼진다. 꽃은 백색이며,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자웅이주이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고 사각형이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잎과 줄기는 약용으로 사용한다.

씀바귀 *Ixeridium dentatum* (Thunb. ex Mori) Tzvelev

중부 이남의 산이나 들에 흔히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어느 곳에서도 잘 자란다. 키는 25~50cm이고, 잎은 끝이 뾰족하고 밑은 좁아져 잎자루로 이어지며 1/2이하에 치아모양의 톱니가 생긴다. 꽃은 황색으로 지름이 약 1.5cm 정도로 원줄기 끝에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고, 종자에 붙은 갯털은 연한 갈색이다.

알며느리밥풀 *Melampyrum roseum* var. *ovalifolium* Nakai ex Beauverd

중부 이남에서 자라는 반기생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에 주로 자라며 습기가 많다. 키는 30~70cm 정도이고, 잎은 중앙에 있는 잎이 난형이며 뾰족하고 길이는 3~6cm, 폭이 1.5~3cm이다. 꽃은 홍자색이며 줄기 정상부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끝에 긴 가시털 같은 톱니가 있다. 열매는 길이가 1cm 정도로 끝이 뾰족하며 짧은 털이 있다.

애기나리 *Disporum smilacinum* A. Gray

중부 이남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나 양지쪽에서 잘 자라며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한다. 키는 20~40cm이고, 잎은 타원형으로 길이는 4~7cm, 폭은 1.5~3.5cm이다. 꽃은 4~5월에 연한 녹색으로 피며 가지 끝에서 1~2개 밑을 향해 달린다. 열매는 길며 둥글고 흑색으로 익는다.

애기똥풀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전국의 산지와 동네 주변에서 자라는 2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바른 곳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키는 30~70cm이고, 잎은 어긋나며 길이는 7~14cm, 폭은 5~10cm로 끝이 둥글

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황색으로 길이는 1.2cm이고 줄기 옆에서 나오고 꽃잎은 4장이며, 꽃봉오리 상태에서는 많은 털이 나 있다. 열매는 9월경에 길이는 3~4cm, 지름이 2mm정도의 좁은 원주형으로 달린다. 꽃줄기를 자르면 노란 액체가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애기의 똥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애기풀 *Polygala japonica* Houtt.

각처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초본성 반관목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의 수분이 작은 곳과 물빠짐이 좋고 광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20cm이고, 잎은 난형으로 잔털이 있으며 마주난다. 줄기는 뿌리에서 여러 대가 나와 바로 서거나 비스듬히 자라며 전체에 잔털이 난다. 꽃은 나비와 같은 형상을 하고 연한 홍색으로 달리고 꽃받침 잎은 5개로 양쪽 2개의 꽃받침 잎이 날개 모양으로 된다. 열매는 9월경에 넓은 날개가 있으며 편평한 원형으로 달린다.

양지꽃 *Potentilla fragarioides* var. *major* Maxim.

전국의 산과 들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토질에 관계없이 잘 들어 오는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50cm이고, 잎은 길이는 1.5~5cm, 폭이 1~3cm로 여러개가 나와 사방으로 퍼지며, 양끝이 좁고 양면에 털이 있으며 타원형이다. 꽃은 황색으로 직경은 1.5~2cm로 꽃받침의 길이보다 1.5~2배 정도 길다. 열매는 6~7월경에 길이가 약 2mm 정도로 달리고 털이 없으며 난형이다.

얼레지 *Erythronium japonicum* (Balrer) Decne.

전국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구근식물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며 물 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질이어야 한다. 키는 20~30cm이고, 잎은 길이는 6~12cm, 폭은 2.5~5cm로 녹색 바탕에 자주색 무늬가 있으며 좁은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 꽃은 자주색으로 두장의 잎 사이에서 긴 1개의 꽃줄기가 나오고 상단부에 1개의 꽃이 밑을 향해 달린다. 꽃잎은 6개이고 길이는 5~6cm, 폭은 0.5~1cm로 아침에는 꽃봉오리가 닫혀 있다가 햇볕이 들어오면 꽃잎이 벌어지고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0분 이내이며 오후로 가까워지면 꽃잎이 뒤로 말린다. 꽃 안쪽에는 암자색 선으로 된 “W”자형의 무늬가 선명하게 있다. 열매는 6~7월경에 갈색으로 변하고 타원형 또는 구형이며 종자는 검은 색으로 뒤에는 흰액과 같은 것이 붙어 있다.

영경귀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에서 자라고 토양은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 키는 50~100cm 내외이고, 잎은 길이는 15~30cm, 폭이 6~15cm 정도로 타원형 또는 뾰족한 타원형이고 밑부분이 좁고 새의 깃털과 같은 모양으로 6~7쌍이 갈라지고 잎 끝에 톱니가 있다. 꽃은 지름 3~5cm로서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1개씩 달리고 꽃부리는 자주색 또는 적색이며 길이는 1.9~2.4cm이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고 백색으로 된 갯털은 길이가 1.6~1.9cm이다.

염주괴불주머니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전국 각처의 바닷가에서 자라는 2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공중습도가 높은 곳의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40~60cm이고, 잎은 길이와 폭이 각 10~25cm로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꽃은 황색이고 길이는 1.5~2cm로 한쪽은 방패와 같은 모양으로 벌어지고, 다른 한쪽은 반대로 된다. 열매는 6~7월경에 달리고 염주처럼 잘록하며 종자는 흑색이고 1줄로 배열되며 많이 붙어 있다.

오이풀 *Sanguisorba officinalis* L.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30~150cm이고, 잎은 길이가 2.5~5cm, 폭이 1~2.5cm로 삼각형의 톱니가 있고 타원형이다. 꽃은 적색이고 길이는 1~2.5cm, 지름이 0.6~0.8cm로 곧게 서고 한 개의 긴 꽃대 주위로 꽃자루가 없는 것들이 많이 달린다. 열매는 10~11월경에 달리고 사각형이다.

왕고들빼기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Kuntze) H. Hara

우리나라 산과 들에 분포하는 1년생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이나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1~2m까지 자라고, 잎은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분백색으로 길이는 10~30cm, 폭이 1~5cm로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연한 황색이고 원가지에서 여러 개 갈라지고 길이는 20~40cm로 많은 작은 꽃들이 달리며 지름은 약 2cm이다. 열매는 9월경에 백색으로 달리고 종자 위의 갯털은 길이 7~8mm이다.

으아리 *Clematis mandshurica* Ruprecht

각처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낙엽 덩굴식물이다. 생육환경은 양지나 반그늘의 토양 비옥도

가 높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2~4m이고,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는 구부러져 덩굴손과 같으며, 양면에 털이 없고 끝은 밋밋하다. 꽃은 흰색으로 길이 1.2~2cm 정도로 원줄기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핀다. 열매는 9월경에 익는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어린잎은 식용, 뿌리는 약용으로 이용된다.

은난초 *Cephalanthera erecta* (Thunb. ex Murray) Blume

전국의 산과 들에 분포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물 빠짐이 좋은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40~60cm이고, 잎은 길이가 3~8.5cm, 폭이 1~2.5cm로 긴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줄기를 감싸며 어긋난다. 꽃은 백색으로 원줄기 끝에 3~10개가 이삭과 같이 달린다. 열매는 7~8월경에 길이가 약 2cm 정도로 달리고 안에는 작은 종자들이 많이 들어 있다.

은대난초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Blume

전국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물 빠짐이 좋은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30~50cm이고, 잎은 길이가 5~15cm, 폭이 1.5~4cm로 끝이 뾰족하고 긴 타원형으로 어긋난다. 꽃은 백색으로 길이는 0.4~0.7cm이고 완전히 퍼지지 않는다. 열매는 7~8월경에 갈색으로 달린다.

은방울꽃 *Convallaria keiskei* Miq.

전국 각처의 산에 분포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이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20~30cm이고, 잎은 길이가 12~18cm, 폭은 3~7cm로 3월경에 막에 둘러싸인 첫 잎이 지상부로 올라오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한 흰빛이 도는 긴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다. 꽃은 백색으로 길이는 0.6~0.8cm로 “종”이나 “항아리” 모양과 같고 끝이 6개로 갈라져서 뒤로 젖혀진다. 두 잎 사이에서 꽃대가 출현하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면 은은한 사과 혹은 레몬향이 강하게 전해 온다. 열매는 9월경 직경이 약 0.6cm 정도로 적색이며 둥글게 달린다.

이고들빼기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Pak & Kawano

전국 각지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1~2년생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30~70cm이고, 잎은 길이 6~11cm, 폭 3~7cm로 어긋나고 끝이 둔하며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꽃은 황색이고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펼쳐지듯 달리고, 화경은 꽃이 필 때는 곧게 서지만 핀 다음에는 처진다. 열매는 10~11월경에 달리고 길이는 0.3~0.4cm로 갈색 또는 흑색이며, 갓털은 백색으로 길이는 0.3cm정도이다.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Houtt.

전국의 산과 들에 분포하는 이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70~100cm 정도이고, 잎은 마주나고 잎자루가 길며 뿌리에서 생겨난 잎은 끝에 둔한 톱니가 있고 꽃이 필 때 없어진다. 꽃은 홍자색으로 윗부분의 잎자루에 여러 개 층층으로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며 넓은 난형으로 편평하다.

인동덩굴 *Lonicera japonica* Thunb.

우리나라 전역의 산에 자라는 반상록활엽 덩굴성관목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의 물 빠짐이 좋고 토양 비옥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2~4m 가량까지 자라고, 잎은 타원형이며 길이는 3~8cm, 폭이 1~3cm로 톱니가 없고 처음에는 잔털이 있지만 전개되면서 털이 없어지거나 뒷면 일부에 남아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5mm로 털이 있다. 꽃은 백색에서 시들면서 황색으로 변하며 1~2개씩 잎자루에 달린다. 열매는 9~10월에 흑색으로 성숙하고 지름이 7~8mm 정도로 둥글다.

잔대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Regel) H. Hara

우리나라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물 빠짐이 좋은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50~100cm이고, 잎은 난형으로 양끝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꽃은 보라색이나 분홍색이 있으며 길이는 1.5~2cm이고, 종 모양으로 생겼고 줄기 끝에 달린다. 열매는 10월경에 달리고 갈색으로 된 씨방에는 먼지와 같은 작은 종자들이 많이 들어 있다.

제비꽃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전역의 산과 들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음지의 물 빠짐이 좋은 곳에 자란다. 키는 10~15cm이고, 잎은 길이가 3~8cm, 폭이 1~2.5cm로 가장자리에 얇고 둔한 톱니가 있으며 뿌리에서 긴 잎자루가 있는 잎이 모여난다. 꽃은 보라색 또는 짙은 자색으로 잎 사이에서 긴 화경이 나오며 그 끝에 한 송이 꽃이 달려 한쪽을 향하여 핀다. 열

매는 6~7월경에 타원형으로 달린다.

족도리풀 *Asarum sieboldii* Miq.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또는 양지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15~20cm이고, 잎은 폭이 5~10cm이고 줄기 끝에서 2장이 나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잔털이 많으며 줄기는 자줏빛을 띤다. 꽃은 자줏빛으로 끝이 세갈래로 갈라지고 향아리모양을 하며 잎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잎을 보고 쌓여있는 낙엽을 들어 내면 속에 꽃이 숨어있다. 열매는 8~9월경에 두툼하고 둥글게 달린다.

좀가지풀 *Lysimachia japonica* Thunb.

제주도, 지리산, 경기도 강화도의 산지에서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겨울 온도가 따뜻한 남부와 토양의 물빠짐이 좋고 부엽질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7~20cm이고, 잎은 길이 0.6~2.3cm, 폭은 0.5~1.5cm 정도로 넓은 난형이고 짧은 털이 있고 어긋난다. 줄기는 비스듬히 서지만 나중에는 옆으로 길게 받는다. 꽃은 잎자루에서 1송이씩 황색으로 달린다. 열매는 8~9월경으로 윗부분에 긴털이 있으며 둥글게 달리며 종자는 흑색이다.

쥐꼬리망초 *Justicia procumbens* L.

경기도 이남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나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약 30cm이고, 잎은 길이가 2~4cm, 폭은 1~2cm로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톱니가 있고, 긴 타원형이다. 꽃은 연한 자홍색이며 길이가 2~5cm로 원줄기나 가지 끝에서 핀다. 종자는 9~10월경에 달리고 잔주름이 있다. 간혹 흰색으로 된 흰쥐꼬리망초(*Justicia procumbens* L. for. *albiflora* Y. Lee for. nov.)가 있다.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var. *mucronulatum*

전국에 넓게 분포하는 낙엽활엽관목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조건에 관계없이 반그늘과 양지에서 잘 자란다. 키는 1.5~3m이고, 잎은 길이가 4~7cm, 폭은 1.5~2.5cm이고 표면은 옥색이고 비늘과 같은 것이 있고, 뒷면은 옅은 녹색으로 긴 타원형이고 뽀족하며 톱니가 없다. 꽃은 자홍색 혹은 연한 홍색으로 가지 끝에 한송이 혹은 몇송이가 먼저 피고 그 후 잎이 나온다. 꽃은 암술이 수술 보다 길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꽃잎은 5갈래로 갈라지고 지름은 3~4.5cm이고 가는 섬모가 있다. 열매는 10월경에 타원형으로 달린다.

질경이 *Plantago asiatica* L.

각처의 들과 산, 길가에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 어느 곳에서도 잘 자란다. 키는 10~50cm이고, 잎은 길이가 4~15cm, 폭이 3~8cm로 뿌리에서 퍼지며 대부분의 잎이 길이가 비슷하고 밑부분이 넓어지는 타원형이다. 꽃은 백색이고 잎 사이에서 나와서 작은 꽃들이 줄기 아랫부분부터 피며 위쪽으로 올라간다. 열매는 10월경에 달리고 씨방 안에는 6~8개의 흑색 종자가 들어 있다.

찔레꽃 *Rosa multiflora* Thunb. var. *multiflora*

전국의 산과 들의 기슭과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 활엽 관목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어느 곳에서도 잘 자란다. 키는 약 2m 정도이고, 잎은 길이가 2~3cm, 폭이 1~2cm로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에 잔털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고 5~9개의 작은 잎은 서로 어긋난다. 꽃은 백색 또는 연홍색으로 지름이 약 2cm로 새가지 끝에 달리며 향이 강하게 난다. 열매는 9~10월경에 적색으로 익고 지름이 약 0.8cm로 둥글게 달린다.

참취 *Aster scaber* Thunb.

각처의 산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이고 습기가 많은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1.5m이고, 잎은 잎자루가 길고 심장형이며 길이는 9~24cm, 폭은 6~18cm로 거칠고 양면에 털이 있고 뿌리에서 나온 잎은 꽃이 필 때 썸 없어진다. 꽃은 백색이고 지름은 1.8~2.4cm로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거의 편평하게 펼친 듯 달리며 꽃줄기의 길이 0.9~3cm이다. 열매는 11월경에 달리고 종자 끝에 달린 갯털은 검은 색을 띠는 백색으로 길이는 3.5~4mm이다.

천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var. *serratum* Nakai

각처 숲의 나무 밑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토양이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20~50cm이고, 잎은 길이가 10~20cm이고 5~10갈래로 갈라지며 긴 타원형이고, 작은 잎은 양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다. 꽃은 녹색바탕에 흰선이 있고 깔대기 모양으로 가운데 꽃 차례중의 하나인 곤봉과 같은 것이 달려 있으며 꽃잎 끝은 활처럼 말린다. 열매는 10~11월에 붉은색으로 포도송이처럼 달린다.

청미래덩굴 *Smilax china* L.

중부 이남의 산야 표고 1,600m이하의 양지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 덩굴성식물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 바른 곳에 서식한다. 키는 2~3m이고, 잎은 길이는 3~12cm, 폭은 2~10cm이고 광채가 있으며 질기고 잎자루는 길이가 0.7~2cm이고 턱잎은 덩굴손이 된다. 꽃은 황록색으로 잎겨드랑이에 달리고 꽃줄기 길이는 1.5~3cm, 작은 줄기는 길이가 1cm정도된다. 열매는 9~10월경에 적색으로 성숙되며 둥글고 지름 1cm정도로 명감 혹은 “망개” 라고도 한다.

층층이꽃 *Clinopodium chinense* var. *grandiflora* (Maxim.) Kitag.

전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15~40cm이고, 잎은 길이는 2~4cm, 폭은 1~2.5cm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마주나며 긴 타원형이다. 꽃은 분홍색으로 길이가 0.5~0.8cm로 층층으로 조밀하게 원줄기 끝과 가지 끝에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린다.

취 *Pueraria lobata* (Willd.) Ohwi

우리나라 전역의 표고가 낮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덩굴성식물이다. 생육환경은 토양비옥도가 좋고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줄기를 뺏어내며 자란다. 길이는 약 10m 정도까지 자라고, 잎은 어긋나고 끝은 밋밋하며, 잎자루는 길이가 10~20cm이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흰색을 띤다. 줄기는 흑갈색으로 나무와 다른 것들을 감고 올라가며, 흑갈색이다. 뿌리는 길이가 2~3m, 지름은 20~30cm 정도의 큰 것도 있고 섬유질이 많아 회색빛을 띠고 녹말과 같은 것을 저장한다. 꽃은 홍자색이고 길이는 1.8~2.5cm로 10~25cm의 짧은 화경에 많이 달린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고 종자는 갈색이며 작다.

큰까치수영 *Lysimachia clethroides* Duby

우리나라 각처의 산에서 흔히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에서 자란다. 키는 50~100cm이고, 잎은 길이는 6~14cm, 폭이 2~5cm로서 끝이 뾰족하고 어긋난다. 꽃은 백색으로 원줄기 끝에서 한쪽으로 파도 물결처럼 아래에서 위쪽을 올라가며 작은 꽃들이 뭉쳐 핀다. 열매는 9~10월경에 달리며 둥글고 지름은 2.5mm 정도이다.

큰엉겅퀴 *Cirsium pendulum* Fisch. ex DC.

우리나라 중부 이북의 주로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1~2m이고, 잎은 길이는 40~50cm, 폭은 20cm로 양면에 털이 있고 뿌리에서 올라온 잎은 꽃이 필 때 없어지며, 중앙에 있는 잎은 끝이 꼬리처럼 뾰족하고 길이는 15~25cm이다. 꽃은 자주색이고 아래를 향해 달리고 길이는 1.2~2.2cm이며, 지름은 3~4cm로서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린다. 열매는 10~11월경에 달리고 백색 갯털이 있다.

큰천남성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남도의 계곡이나 서해안 섬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이며 토양의 비옥도가 높은 곳에서 서식한다. 키는 15~20cm이고, 잎은 15~25cm 정도이며 소엽은 3장이고 넓은 난형이고, 길이는 8~30cm, 폭은 4~10cm 정도이다. 잎 전면에는 광택이 많이 나는 녹색이고 뒷면은 흰 빛이 돈다. 꽃은 녹색으로 안쪽은 흑자색이고 뒤쪽은 녹색줄이 많이 있다. 열매는 9월에 빨갱게 달린다.

털진득찰 *Sigesbeckia pubescens* Makino

전역에 분포하는 1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약 1m이고, 잎은 길이는 7.5~19cm, 폭은 6.5~18cm로 양면, 특히 뒷면 맥 위에 털이 촘촘히 있으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하며 삼각형이다. 꽃은 황색이고 꽃을 감싸고 있는 꽃받침에는 끈적이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린다. 열매는 10~11월경에 검은 색 씨방에 많이 들어 있다. 유사종으로는 진득찰(*Sigesbeckia glabrescens* Makino)이 있다.

토현삼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이며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1.5m까지 자라고, 잎은 길이는 10~15cm, 폭은 4~7cm로 끝에 작고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마주난다. 꽃은 흑자색으로 제일 꼭대기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달리고 이들은 또 위에서 먼저 꽃이 피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개화한다. 열매는 8~9월경에 달리고 씨방에는 작은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파리풀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Hara

각처의 산과 들에서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반그늘 혹은 양지의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70cm이고, 잎은 길이가 7~9cm, 폭이 4~7cm로 양면, 특히 맥 위에 털이 많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넓은 난형이고 마주난다. 꽃은 연한 자주색이고 길이가 0.5~0.6cm로 밑에서부터 위를 향해 달리지만 점차 옆을 향하고 뒤쪽에 있는 3개의 열편은 가시처럼 되어 다른 물체에 잘 붙고 까락은 길이는 약 1.5mm 정도이다. 열매는 10월경에 달린다.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Yabe ex Nakai) Nakai ex Mori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처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바른 곳의 토양이 중성화 된 곳에서 서식한다. 키는 30~40cm이고, 잎은 길이는 30~40cm이고 새의 날개처럼 깊게 2~5갈래로 갈라지며 전체에 긴 백색털이 밀생하여 흰빛이 돌지만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털이 없다. 꽃은 붉은 색으로 길이는 약 3cm 정도 되고 잎 끝에서 줄기가 올라오며 줄기 끝에 한 개의 꽃이 긴 종모양으로 달린다. 꽃잎 겹 표면은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안쪽은 검붉은 자주색을 하고 있다. 열매는 5~6월경에 익으며 긴 난형이고 겉에는 가는 백색 털이 있으며 아래쪽에 검은 색의 종자가 붙어 있다.

현호색 *Corydalis remota* Fisch. ex Maxim

각처의 산과 들에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자란다. 키는 약 20cm 정도이고, 잎은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회백색이며 어긋난다. 꽃은 연한 홍자색이며 길이는 약 2.5cm 정도되고 5~10개가 원줄기 끝의 뭉쳐서 달린다. 열매는 6~7월경에 길이가 2cm, 폭이 0.3cm정도로 달리고 종자는 광택이 나고 흑색이다.

제 4절 곤충상

물잠자리 *Calopteryx japonica* Selys

성충은 5~7월에 걸쳐 볼 수 있으며, 평지나 구릉지의 수초가 많은 맑은 하천에서 산다. 수컷의 날개는 남색으로 세로맥은 금록색, 소가로맥은 자남색을 띠고 있어 움직일 때마다 날개표면이 청남색으로 빛난다. 암컷은 날개가 갈색으로 앞날개 기부를 빼고는 색이 연하고 유백색의 위연문이 있다.

밀잠자리 *Orthetrum albistylum speciosum* (Uhler)

성충은 4~9월까지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잠자리이다. 주로 평지나 구릉지의 수초가 많은 연못이나 습지의 고인 물, 논 등지에서 산다. 수컷도 처음에는 암컷과 같이 밀짚색을 띠나, 성숙함에 따라 검어지고 흰가루로 덮이게 된다.

두점박이잠자리 *Sympetrum eroticum eroticum* (Selys)

성충은 6월 중순에 나타나 11월까지 볼 수 있으며, 평지나 구릉지의 연못, 늪, 습지, 논 등 꽤 넓게 고인 물에서 산다. 얼굴의 한쌍의 뚜렷한 검은 눈썹모양의 무늬가 있다.

된장잠자리 *Pantala flavescens* (Fabricius)

평지나 구릉지의 연못이나 논에 산다. 날개는 몸에 비하여 크고, 나는 힘이 강하여 공중에서 무리지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배 등면에 가는 검은 줄무늬가 있고, 뒷날개 기부에는 주황색 무늬가 있다. 열대·아열대 지방에서는 연중 성충을 볼 수 있으며, 장거리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동을 해와 한철 번식하다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강아지 *Gryllotalpa orientalis* (Burmeister)

몸은 암갈색으로 온몸에 미세한 털이 있다. 땅속에 굴을 파고 살며, 앞다리는 짧고, 납작하여 땅속 굴을 파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땅속에서 식물의 땅속 줄기나 지렁이, 곤충 따위를 먹고 살며, 때로는 잔디밭이나 농작물의 뿌리를 상하게 하여 해충으로 취급받기도 하는데, 8~9월의 밤에 불빛에 날아드는 성충을 볼 수 있다.

모메뚜기 *Tetrix japonica* (Bolivar)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종으로 평지의 밭이나 길가의 풀 속에 많이 살고, 울지 않는다. 몸은 갈색으로 무늬에는 변화가 많으며, 앞가슴과 등 위에 검은색 무늬가 2개 있는 것이 보통이다. 등 위에서 보면 몸 생김새가 마름모꼴을 이룬 작은 메뚜기이다.

섬서구메뚜기 *Atractomorpha lata* (Motschulsky)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밭이나 풀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암컷에 비해 수컷은 아주 작다. 몸은 녹색이 보통이나 회갈색을 띤 것도 있다. 암컷의 등 위에 작은 수컷이 타고 오랫동안 짝을 이루고 있다.

방아깨비 *Acrida cinerea cinerea* (Thunberg)

7월에서 10월에 걸쳐 볼 수 있으며, 풀밭에 산다. 암수의 크기 차이가 심하며, 몸통색은 녹색에서 갈색을 띠는 것까지 변화가 많으며, 깃털에 따라서는 황백색의 선이나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양쪽 종아리를 잡으면 몸을 위아래로 방아질하듯 움직여 지어진 이름인 듯 하다.

두꺼비메뚜기 *Trilophidia annulata* Thunberg

6월에서 9월에 걸쳐 밭, 풀밭, 길가 등지의 마른 땅에서 볼 수 있으나, 몸통의 색체 때문에 돋보이지 않는다. 머리나 앞가슴에 흑모양의 작은 돌기가 여러 개 나 있다.

말매미 *Cryptotympana dubia*

한국산 매미 중 가장 체구가 큰 종으로 윗면은 광택이 나는 흑색이며, 건강한 개체는 금빛가루로 덮여 있다. 아랫면도 흑색이나, 배와 다리 등에 오렌지색의 무늬가 있다. 겹눈을 포함한 머리 부분의 폭이 넓어 배의 폭과 거의 같다.

남방계열의 종으로서 부속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평지에 분포하며, 특히 제주도에 아주 많이 분포한다. 능수버들이나 양버즘나무 등의 가로수에서 합창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고도가 높은 곳이나 깊은 산속에는 서식하지 않고, 주위가 트인 밝은 평지를 선호한다. 나무의 낮은 곳에 잘 앉으며, 수목이 울창한 산기슭에서는 햇빛이 잘 비치는 나무 꼭대기 쪽에 잘 앉으나 서식 개체 수는 적다.

유지매미 *Graptopsaltria nigrofuscata*

앞 뒤 날개는 불투명하여 갈색 바탕에 흑색 무늬가 있어 기름종이를 연상케 한다. 살아 있을 때의 날개 맥은 연두색을 띠고, 윗면 몸통의 바탕은 보통 흑색이지만 간혹 앞가슴 등과 가운데가슴 등의 대부분이 붉은 갈색인 것도 있다. 앞가슴 등 안쪽에는 갈색무늬가 있고, 가운데가슴 등의 뒷다리 가장자리와 배 부분에는 백색의 무늬가 있다.

아랫면은 갈색 바탕의 백색가루가 덮여 있다. 7월 초순부터 9위러 초순까지 부속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평지와 산지에 서식하며, 울창한 숲속을 좋아하고, 무더운 한낮에는 나무의 낮은 곳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기도 한다. 서식밀도가 높은 곳도 있으나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소요산매미 *Leptosemia takanonis*

암컷은 한국산 매미 중 몸집이 가장 작다. 날개는 투명하고, 앞가슴 등과 가운데 등은 흑색바탕에 녹색무늬가 있고, 배는 주황색을 띠며, 아랫면의 배는 주황색인데 비해 머리 부분과 가슴은 연한 하늘색을 띠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수컷의 배는 매우 길쭉하나 암컷의 배는 매우 짧고 수컷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수컷의 배 아래쪽은 반투명하다.

매미과 중에서 처음으로 5월 하순이 되면 울음소리를 듣게 되며, 8월 초순경까지 이어진다. 부속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나, 제주도에서의 기록은 없다. 도시의 인가 주변에는 서식하지 않으며, 시골의 평지 또는 해발 600m 정도까지의 산지에 많이 서식한다.

낮은 나무에서 주로 울며, 서식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눈치가 빠르지 않다.

애매미 *Meimuna opalifera*

날개는 투명하고, 흑색 몸 바탕에 녹색무늬가 가늘게 있다. 건강한 개체는 등판에 녹색가루가 덮여져 있고, 윗면의 배는 은빛가루로 덮여 있으며, 아랫면은 흑색바탕에 황색이 가미되어 있고, 수컷의 배판은 완전히 흑색이나, 제주도, 홍도 등지의 산에 서식하는 종은 배판 전체가 아랫면의 몸통과 비슷한 짙은 황색 빛이 도는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중부지방에서는 7월 초순경부터 울기 시작하여 8월에 가장 많으며, 보통 9월말까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10월 초순에 듣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부속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평지부터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므로 국내에서 서식범위가 가장 넓은 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체수도 매우 많다. 인가 근처 집이나 전봇대와 같은

인공구조물에 앉아서 울기도 하며, 흐린 날에도 많이 울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울어댄다. 주로 낮은 나무에서 울며, 한번 울고 나면 곧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나무에 앉아 다음 곡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울음을 그치고 그 자리에 한동안 눌러앉아 있기도 하며, 한 곡을 끝내면서 바로 이어 다시 한곡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매미과 중에서는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여 애매미라는 이름을 얻었다.

털매미 *Platypleura kaempferi*

앞날개에는 짙은 갈색의 구름무늬가 있고, 뒷날개는 투명한 바깥 가장자리 외에는 흑색이다. 윗면의 가운데가슴 등은 흑색바탕 가운데 W자 모양의 녹색무늬가 있으며, 앞가슴 등은 녹색의 거의 채워져 있다. 아랫면의 배는 흑색바탕에 백색가루로 덮여 있고, 몸전체 전반에 짧은 털이 덮여 있어 털매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전 세계의 매미 중 분포지역이 가장 넓은 종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부속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6월초에 출현하여 9월 초순까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평지에서부터 해발 800m에 이르기까지 서식하며 나무의 낮은 곳에 앉는 것이 보통이고, 다른 종에 비해 환경의 지배를 덜 받아 일기불순에도 관계없이 끈질기게 울어댄다.

물땡땡이 *Hydrophilus acuminatus* Motschulsky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일대에 분포하며, 평지의 못, 늪, 논에서 서식한다. 성충은 연중 언제나 볼 수 있으며, 수초 따위를 먹고 산다. 몸통은 녹색의 광택이 도는 흑색이고, 더듬이는 황갈색이고, 앞가슴 아래쪽에 날카로운 돌기가 있으며, 잔털이 있고 이것에 공기를 막상으로 붙여 호흡에 쓴다.

넓적사슴벌레 *Dorcus titanus castanicolor*

한반도 전역과 일본(쓰시마), 중국에 분포하며, 6~8월에 걸쳐 나타나고,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에 모이지만 불빛에도 모인다. 수컷의 큰 턱은 가늘고 길며, 직선 모양이고, 앞가슴 등판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이다.

칠성무당벌레 *Coccinella septempunctata*

몸길이는 8mm 안팎이며, 성충은 4월에서 11월까지 주로 풀밭이나 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유충과 더불어 진딧물을 먹고 산다. 유충기에는 4,000마리 정도의 진딧물을 먹어 없애

는 익충의 역할을 한다. 딱지 날개 위에 7개의 검정색 점무늬가 뚜렷하다.

청띠제비나비 *Graphium sarpedon*

남해 연안과 부속도서의 따뜻한 지방에서 서식하고, 민첩하게 날아다니며, 후박나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습지나 축축한 곳에서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봄형은 5월, 여름형은 6월에서 8월에 나타나며 3회 발생한다. 토끼풀, 왕머루, 후박나무 등의 꽃에서 꿀을 빨다. 날개에 푸른빛의 무늬가 있다.

극남노랑나비 *Eurema laeta*

중부이남지방,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에서 인도까지 분포한다. 양지바른 풀밭, 논밭 주변, 하천제방 등지에서 무리지어 살며, 개체수가 아주 많다. 6월부터 10월까지 볼 수 있는데,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을형은 여름형에 비하여 훨씬 크며, 앞날개 외연이 직선이고 뒷날개 아랫면에 2개의 갈색줄무늬가 평행으로 달리는 점으로 구별된다.

먹그림나비 *Dichorragia nesimachus*

산간 계곡 숲속 등지에 많이 서식하며, 힘차고 민첩하게 날고 날개를 접고 앉는 경우가 드물다. 성충은 연 2회 발생하는데, 제 1회가 5~6월에, 제2회는 7~8월에 나타난다.

수액에 즐겨 모이며, 습지에 내려와 물을 마시고 썩은 과일, 짐승의 배설물 그리고 사람의 땀에도 날아드는데, 개체수가 아주 적어 희귀하다.

작은멋쟁이나비 *Vanessa cardui*

평지나 산지 어디서나 볼 수 있으나 개체수가 많지 않으며, 아주 민첩하게 날아다니고, 인기척에 민감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성충은 5월경부터 나타나 늦가을까지 계속하여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꽃에는 모이지만 수액에는 모이지 않으며, 큰 무리를 지어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넘어 유럽까지 장거리 이동하는 습성이 보고되고 있다.

애기세줄나비 *Neptis sappho*

평지 또는 산지 어디서나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연 2회 발생하는데, 5월 상순에서 6

월 상순, 7월말에서 9월 중순에 나타난다. 양지 바른 숲의 가장자리에서 주로 서식하며, 꽃 위나 낮은 잎 위를 천천히 날아다니고, 산초나무와 같은 꽃이나 수액, 썩은 과일 등에 모여 든다. 습지에 내려앉아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식초(먹이식물)로는 넓은잎갈퀴, 아까시나무 등이 있다.

부처사촌나비 *Mycalesis francisca*

숲속이나 산기슭, 풀밭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연 2회 발생하는데, 양지바른 곳보다는 어두컴컴한 곳을 즐기며 흐린 날에도 자주 볼 수 있다.

부처나비와 비슷하나 날개 아랫면의 바탕색이 짙고 보라색을 띠며, 앞뒤 날개 아랫면 중앙에 있는 흰띠가 다소 보라색이어서 쉽게 구별된다.

제 5절 조류상

표1.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국명	학명	보호유형	
		멸종 위기종	천연 기념물
두루미	<i>Grus japonensis</i>	I	202호
매	<i>Falco peregrinus japonensis</i>	I	323호
저어새	<i>Platalea minor</i>	I	205호
황새	<i>Ciconia boyciana</i>	I	199호
검은머리갈매기	<i>Chroicocephalus saundersi</i>	II	
노랑부리저어새	<i>Platalea leucorodia</i>	II	205호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II	243호
붉은배새매	<i>Accipiter soloensis</i>	II	323호
수리부엉이	<i>Bubo bubo</i>	II	324호
알락개구리매	<i>Circus melanoleucos</i>	II	323호
원앙	<i>Aix galericulata</i>	II	327호
재두루미	<i>Grus vipio</i>	II	203호
젯빛개구리매	<i>Circus cyaneus</i>	II	323호
조롱이	<i>Accipiter gularis</i>	II	323호
큰고니	<i>Cygnus cygnus</i>	II	201호
큰기러기	<i>Anser fabalis</i>	II	
큰말똥가리	<i>Buteo hemilasius</i>	II	
황조롱이	<i>Falco tinnunculus</i>	II	323호
흑두루미	<i>Grus monacha</i>	II	228호
흰죽지수리	<i>Aquila adalberti</i>	II	

황새 *Ciconia boyciana*

황새는 목과 윗가슴을 가로지르는 목둘레의 긴 깃털로 식별할 수 있다.

민물과 습지대 그리고 때때로 근해 갯벌에서 물고기와 작은 동물을 먹는다. 2500마리 이하로 있고 남은 개체군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인접한 아무르와 우수리강변에서 번식을 한다. 4월에 번식지에 도착하여 새 둥지를 짓거나 옛 것을 수리하여 사용한다. 이들 개체군은 그룹을 지어 남쪽으로 이주를 하여 월동을 한다.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노랑부리저어새는 진흙, 점토 또는 모래기질을 포함한 습지대의 넓고도 물이 얇은 곳을 선호한다. 반면에 불안정한 기질을 가진 곳, 뺨뺨한 초지, 빠른 흐름을 보이는 곳은 피한다. 신선하고, 염분이 있는 곳에 산다.

비번식기에는 단독으로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먹이활동을 한다. 대부분 아침과 저녁동안에 먹이활동을 하고 근해에서는 낮 동안 조간대에서 먹이활동을 한다. 먹이활동 지역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저어새 *Platalea minor*

몸길이 약 84cm이다. 겨울깃은 흰색이고, 어른새의 여름깃은 가슴에 누런 갈색 띠가 있다. 덩기도 누런 갈색이다. 이마와 눈가장자리·턱밑·목의 피부가 드러난 부위는 검정색이다.

바닷가 얇은 곳이나 간척지·늪지·갈대밭·논 등지에서 먹이를 찾고 숲에서 잔다. 1~2마리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할 때가 많지만 20~50마리씩 무리를 짓기도 한다. 경계심이 강해 사람이 다가가면 멀리 날아간다. 7월 하순에 4~6개의 알을 낳는다.

큰고니 *Cygnus cygnus*

몸길이 약 1.5m, 펼친 날개의 길이 약 2.4m이다. 암컷과 수컷 모두 몸 전체가 흰색이며, 눈 앞에 황색의 피부가 노출되어 있다. 부리는 선명한 황색이며, 부리 끝에서 콧구멍 부근 사이와 아랫부리는 검은색이다. 다리는 검은색 또는 짙은 회색이다. 어린 새의 경우 몸의 윗면은 회백색, 머리는 어두운 회백색을 띠며 아랫면은 흰색이다. 부리는 흐린 살색이며 그 끝은 검은색이다. 그 밖에는 성숙한 새와 같다. 고니와 비슷하나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더 넓다.

큰기러기 *Anser fabalis*

암수의 깃털 색이 서로 비슷하다. 몸 전체가 회갈색이며 등을 비롯한 위쪽이 진하다. 부리는 검은색이나 끝에는 황색의 띠가 있다. 날개 끝과 꽂지는 검은색이고 꽂지깃의 가장자리에는 흰색의 띠가 있다. 그리고 위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며 다리는 주황색을 띠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 및 아시아 북쪽의 건조하며 약간 움푹 들어가 곳에 둥지를 만들며 무리를 지어 번식한다. 겨울에는 남쪽의 온대지역으로 이동한다. 번식지에서는 풀밭의 각종 식물의 열매나 줄기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먹지만 겨울에는 주로 눈에 떨어진 벼 이삭이나 물풀과 풀뿌리 등을 먹는다. 우리나라에는 10월 초에 찾아와 이듬해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겨울을 보내는 겨울철새이다. 이동할 때는 줄지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원앙 *Aix galericulata*

겨울 깃털 또는 번식기의 암수의 깃털 색은 서로 다른데, 수컷의 머리는 평평하고 꼭대기는 짙은 녹색이며 뒷머리 부위에는 길게 늘어진 적갈색 깃털이 있다. 또한, 눈 주위의 흰색 깃털과 어깨를 포함한 옆구리의 넓은 황백색 부위 그리고 위로 솟은 적 홍색의 은행잎처럼 생긴 깃이 특징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회색 바탕에 배 부위에는 흰색의 얼룩점이 있다. 번식 후 깃털은 암수가 매우 비슷하다.

산림을 낀 늪지대나 계곡의 냇가 등에서 각종 식물의 열매나 작은 동물들을 먹는다. 냇가와 인접한 오래된 나무 구멍이나 바위틈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의 텃새이다. 알 품기와 새끼 기르기는 암컷이 주로 한다. 번식기에는 암수 외에 무리를 형성하지 않지만, 비번식기인 겨울에는 북쪽에서 번식하는 무리와 합류하여 많은 무리를 이룬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동북쪽, 대만 등에 분포하며 최근에는 산림이 우거짐에 따라 그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수리 *Aegypius monachus*

몸 전체가 균일한 암갈색이며, 정수리와 윗목에는 털이 없고, 목 주위에는 특이한 깃이 있다. 초원지대·고산지대·강하구를 근거지로 단독 또는 암수 한 쌍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짐승의 시체나 병들어 죽어가는 짐승 등을 먹이로 한다.

날 때는 폭이 넓고 긴 날개를 직선에 가깝게 꺾고 날아오르며, 날개를 편 채 기류를 이용하여 날아다닌다. 둥우리는 수목이나 암벽 등 높은 곳에 나뭇가지를 많이 쌓아서 큰 접시 모양으로 만든다. 산란기는 2~4월이며 산란수는 1개이다. 포란일수는 52~55일이고 부

화한 지 4개월이 지나면 날 수 있다.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수컷의 겨울 깃은 이마에서 허리까지 잿빛이며, 어깨와 등은 약간 갈색을 띤다. 위꼬리덮깃은 흰색이다. 귀 깃, 목 옆은 잿빛이며, 턱밑과 턱 아래 부위는 엷은 잿빛이다. 윗가슴은 엷은 잿빛이며, 아랫가슴, 배,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다. 부리는 시멘트색이며, 다리는 황갈색이다.

풀이 우거진 습지, 낮은 산이나 낮은 언덕, 하천 부근의 풀밭, 농경지 등에서 생활하는 겨울철새이다. 주로 땅 위에 내려앉은 것을 잡아먹지만, 날아가는 작은 새를 추격하여 잡기도 한다. 땅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가볍게 뛰기도 하는데, 뿔 때는 꼬리를 상하로 심하게 흔든다. 둥지는 습지나 작은 물웅덩이의 땅 위에 물풀이나 작은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접시 모양으로 만든다. 알을 낳는 시기는 4월 하순~5월 중순이다.

알락개구리매 *Circus melanoleucos*

수컷의 겨울 깃은 머리부터 허리까지는 검은색이, 위꼬리덮깃의 위쪽은 잿빛 흰색이며, 아래는 흰색에 어두운 잿빛의 가로 얼룩점이 있다. 윗가슴은 검은색이며, 아랫가슴 이하의 아랫면은 흰색이다. 부리는 시멘트색이고, 다리는 황색이다.

하천 부근의 건조한 풀밭이나 산림 부근의 풀밭에서 서식하는 여름철새이자 나그네새이다. 둥지로는 풀밭 위의 오목한 곳을 이용한다. 알은 푸른색을 띤 흰색으로 3~4개 낳는다. 먹이는 작은 조류, 개구리, 물고기 등이다. 기타 습성은 개구리매와 유사하다.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암컷과 수컷 모두 머리 꼭대기 뒷부분부터 위꼬리덮깃까지 청색을 띤 어두운 회색이다. 눈앞과 귀깃은 회색이며, 턱밑과 턱 아래 부위는 크림색을 띤 흰색이다. 가슴과 배는 회색을 띤 녹색 붉은색이며, 아랫배,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다. 각진 모양의 꼬리는 어두운 회색을 띤 갈색으로 5가닥의 어두운 갈색 띠가 있다. 부리는 푸른색을 띤 검은색이며, 다리는 황색이다.

주로 평지나, 낮은 언덕 또는 농촌의 인가 부근에 있는 침엽수림이나 활엽수림에서 서식하며, 높은 산의 우거진 숲에서도 볼 수 있다. 둥지는 참나무나 밤나무 등의 나뭇가지에 만들고, 안에는 나뭇잎을 깐다. 알을 낳는 시기는 5월경이며 짝짓기 후 3~5개 정도의 알을 낳

는다. 중국과 한국에서 주로 번식하는 여름철새다.

조롱이 *Accipiter gularis*

수컷의 윗면은 석판 검은색이다. 꼬리는 석판색이며 5줄의 어두운 석판색 띠가 있다. 턱 밑과 먹은 흰색 또는 황갈색이고, 가슴 이하는 황갈색으로 명확하지 않은 누런 갈색의 가로 띠가 있다. 그러나 배옆에는 붉은 황갈색의 큰 얼룩점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아랫배와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다. 첫째날개깃은 검은 갈색이고 둘째날개깃과 셋째날개깃은 어두운 석판색이다. 날개덮깃은 어두운 석판색이다. 겨드랑이깃과 아랫날개덮깃은 황갈색으로 어두운 갈색의 가로띠가 있다.

암컷의 윗면은 석판 갈색으로 수컷보다도 색이 옅다. 날개의 얼룩점은 수컷과 비슷하나 대체로 석판색 기가 적고 거의 어두운 갈색에 가깝다. 셋째날개깃의 흰 얼룩점은 넓고 그 일부는 밖으로 노출된다. 꼬리의 얼룩점은 수컷과 같으나 석판 갈색이다. 턱밑 이하의 아랫면은 흰색 또는 크림 흰색 바탕에 갈색의 턱밑선이 있다. 가슴, 배, 경부에는 옅은 갈색의 넓은 가로띠가 있다.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다. 부리는 석판 회색으로 끝은 검은색이다. 낫막은 황색이고, 홍채는 레몬 황색이다. 다리는 황갈색이고, 발톱은 검은색이다.

큰말뚝가리 *Buteo hemilasius*

크고 옅은 갈색 깃털을 갖고 있으며 배에는 작은 반점이 있다. 꼬리에는 길고 뚜렷한 줄 무늬가 있다. 어린 새는 말뚝가리의 새끼와 구별하기 어렵다. 다른 맹금류와 마찬가지로 발톱이 날카로우며 끝이 굽어 있다.

겨울철새로서 넓은 초원, 시골 및 간척농경지 등에서 개구리, 들쥐 등 육상동물을 잡아먹는다. 절벽과 산지의 사면에 튀어나온 나무에 등지를 짓는다. 등지는 나뭇가지를 쌓아올려 오목한 모양으로 만들며 알은 짝짓기 후 보통 2~4개 정도 낳는다. 유럽과 아시아의 북부,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한국, 일본, 티베트 등에 분포한다.

흰죽지수리 *Aquila adalberti*

흰죽지수리는 중대형 수리류로서 겨울깃(번식이 끝나고 가을철 털갈이로 난 깃)은 어두운 갈색이고 옅은 얼룩무늬가 있으며 정수리와 윗목은 검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이다. 어깨와 날개 앞부분에는 흰색 얼룩무늬가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서부지방에서 5회의 채집 기록이 있을 뿐인 희귀한 겨울새이다.

흰죽지수리는 습성은 독수리보다 말뚝가리에 가까운데, 등지에 사람이 다가가도 덤벼들지 않고 오히려 멀리 날아가 버린다. 성질이 활발하지 못하며 나무 위나 바위 위에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쉴 때가 많다. 썩은 고기를 즐겨 먹는다. 날개를 천천히 펴려서 날기도 하고 날개를 편 채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원을 그리듯이 날기도 한다. 번식지에서는 산비탈의 낙엽 활엽수에 등지를 틀며 매년 수리해서 사용한다. 주로 작은 포유류나 곤충류, 조류, 동물의 썩은 고기를 먹는다.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수컷은 머리와 꼬리가 회색이며 꼬리 끝과 날개 끝은 검은색이다. 등은 갈색 바탕에 검은색의 반점이 있으며, 배는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의 반점이 줄지어 배열돼 있다. 암컷은 꼬리를 포함한 몸의 위쪽이 갈색이며 날개 끝과 꼬리 끝만 검은색이다.

먹이를 찾으려고 공중을 빙빙 돌다가 일시적으로 정지비행을 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며 넓게 펼쳐진 농경지, 시골의 야산을 낀 농경지 등에서 작은 새나 들쥐 등을 잡아먹는다. 고층건물이나 절벽의 틈, 그리고 버려진 까치집 등 다양한 곳에 등지를 튼다. 알은 흰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의 무늬가 있으며 5개 정도 낳는다.

매 *Falco peregrinus japonensis*

수컷은 몸길이 38cm, 암컷은 51cm 정도이며, 머리꼭대기에서 뒷목까지는 석판(石板) 흑색이고 등·날개·꼬리는 어두운 청회색이다.

뺨에는 수염 모양의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에는 검은 가로띠무늬가 있다. 배는 백색이나 황갈색을 띠며 검은 가로무늬가 뺨뺨하다. 그러나 어린 새는 등이 갈색, 배가 연한 황갈색이며 가슴에서 배에 걸쳐 흑갈색의 세로무늬가 가득하다.

해안의 절벽 바윗굴에서 번식하나 산지의 바위틈에서도 번식하는 매우 드문 텃새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전국의 해안·하구·호소와 저수지·농경지 등 개활지에서도 눈에 띈다.

절벽이나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 하늘에서 급강하하여 발로 차다시피 해서 떨어뜨려 잡는다. 잡은 포획물은 일정한 장소에서 먹는다. 먹이는 대개 오리·도요새·물떼새·직박구리 등 중형조류이며 더러는 들쥐나 멧토끼도 포획한다.

3월 하순에서 4월에 걸쳐 해안이나 해안가 산지 바위절벽에 3, 4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 일수는 30일, 새끼를 키우는 육추(育雛)일수는 40일이다.

흑두루미 *Grus monacha*

흑두루미는 비교적 키가 작은 두루미의 일종으로, 안쪽 둘째날개깃이 길게 뻗어 꼬리를 덮고 있다. 이마, 머리꼭대기, 눈앞은 피부가 나출되어 있고, 눈앞과 이마에는 검은색의 센털이 밀생하며, 머리꼭대기에는 적색의 피부가 나출되어 있다. 얼굴, 목, 목의 윗부분은 흰색이고 목 아랫부분은 석판 회색이다. 윗면과 아랫면은 석판회색이다.

날개깃과 날개덮깃은 석판 검은색이다. 셋째날개깃은 첫째날개깃보다 길고 전단은 뾰족하며 깃 가장자리는 가늘게 갈라져 있다. 부리는 황갈색인데 기부 쪽은 어두운 살구색이다. 홍채는 갈색을 띤 황색 또는 갈색을 띤 오렌지색이고, 다리는 빨빛 검은색이다. 어린 새의 머리꼭대기는 회백색의 깃털이 있다. 이마, 눈앞, 뒷머리에는 회백색의 깃털이 있고 몸 윗면은 어두운 갈색이다. 셋째날개깃은 성조처럼 길지 않다.

두루미 *Grus japonensis*

두루미는 현존하는 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새다. 머리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 · 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날개의 안쪽 둘째 날개깃과 셋째 날개깃은 검정색이고 나머지 날개깃은 흰색이다. 꽂지를 덮고 있는 둘째 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꽂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된 어린새는 검정색 부분이 연한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기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정수리는 깃털이 없이 얇은 피부로 되어 있으며, 붉은 피부는 감정에 따라 크기와 면적이 변하고 색의 농도도 달라진다.

주로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겨울에는 큰 무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등지는 땅 위에 짚이나 마른 갈대를 높이 쌓아 올려 짓고 6월경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6.5×10cm 정도이다. 암수 함께 품어 32~33일이면 부화하고 부화한 지 약 6개월 동안 어미새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재두루미 *Grus vipio*

몸의 길이는 1.2m, 편 날개의 길이는 1.8m 정도이며, 목과 날개는 흰색, 그 밖의 부분은 잿빛을 띤 흑색이고 얼굴, 이마는 털이 없는 붉은색이다. 부리는 누런빛을 띤 녹색, 다리는 붉은색이다. 시베리아 남동부, 몽골, 만주 등지에서 번식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이기도 하다. 1945년 이전까지는 1,000마리 정도의 무리가 각지에서 겨울을 났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6·25전쟁 이후에는

수십 마리 단위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불과 20~30마리의 무리도 보기 어렵게 되었다. 1968년에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한강 하류의 도래지는 제250호로 지정하여 보호 관찰하고 있다. 주로 습지 풀밭이나 개펄에 산다. 한국에서는 큰 강의 하구나 개펄, 습지, 농경지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검은머리갈매기 *Chroicocephalus saundersi*

암수의 깃털 색이 비슷하다. 여름에는 머리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등의 깃털 색은 옅은 푸른색을 띤 회색이다. 날개 끝은 검은색이지만 연속되지 않고 점점이 배열돼 있다. 아랫면은 모두 흰색이며 다리는 붉은색이다. 언뜻 보면 붉은부리갈매기와 매우 비슷하나 부리는 검은 색이고, 다리는 붉은부리갈매기보다 검붉은 색을 띤다.

수리부엉이 *Bubo bubo*

전장은 66~67cm이고, 머리꼭대기는 갈색을 띤 검은색으로 각 깃털은 연한 미색 또는 옅은 녹색의 가장자리와 검은 갈색의 파도모양 얼룩무늬 또는 벌레 먹은 모양의 얼룩무늬가 있다.

턱밑과 윗턱은 흰색이고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의 세로 얼룩무늬가 있는 한줄의 깃털로 경계되어 있다. 아랫턱과 목옆 깃털의 중앙에는 너비가 10~15mm의 검은 갈색인 세로 얼룩무늬가 있으며, 깃 가장자리는 옅은 녹색 황갈색이다. 윗가슴도 같으나 축반(軸班)은 다소 가늘고 벌레 먹은 모양의 얼룩무늬가 많다.

검은땡기해오라기 *Butorides striatus*

한반도 전역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논, 개울가, 야산을 낀 못, 산간계류, 하천 등지에 서식하며, 소나무 또는 그 밖의 교목과 관목의 가지에 등지를 틀고 옅은 청록색의 알을 3~6개 낳는다. 머리꼭대기, 뒷머리의 깃털은 녹색광택이 있는 검은색의 가는 깃털로 모관을 이룬다.

눈의 앞과 뒤는 녹색, 등은 암회색, 배는 밝은 회색이고 눈과 발은 황색이며, 다리는 녹색이다.

중대백로 *Egretta alba modesta*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번식하는 여름철새로 논, 개울, 하천 등의 습지에서 서식하고 번식

기에는 잡목림, 소나무, 참나무, 아까시나무, 은행나무 등이 있는 야산에서 살며 청록색의 알을 2~4개 낳으며, 암수가 함께 포란하고, 집단으로 번식한다. 백로 종류 중 몸집이 가장 크며, 번식기에는 어깨에 장식깃이 발달하여 꼬리 밑까지 미치고, 가슴에도 긴 장식깃이 있다. 다리와 발은 검은색이고, 여름철의 부리는 검은색이나 겨울에는 노란색이다.

흑로 *Egretta sacra*

남해 연안의 무인도서나 해안 바위에서 연중 볼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는 텃새이다. 무인도의 암초나 나무 위 또는 암벽 위에 나뭇가지와 마른 풀로 조잡하게 접시모양의 등지를 만드는데, 얇은 청록색의 알을 3~5개 낳는다. 몸통색은 흑색과 흰색 2가지가 있는데, 흑색형은 머리, 목 등이 모두 검은색이며, 특히 머리꼭대기가 더욱 짙다. 가슴, 배, 아래꼬리털 등은 다소 얇은 검은색이며, 눈앞은 나출되고 석판색 또는 푸른 회색을 띤다. 뒷머리에는 가는 깃털이 많고 짧은 관을 이룬다. 흰색형의 형태는 흑색형과 같으나 깃털 모두가 흰색이고 눈앞의 나출부위는 황색을 띤 녹색이다. 흰색형은 다른 백로 종류와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우나 서식지가 다른 점이 차이가 난다.

왜가리 *Ardea cinerea*

한국, 일본, 중국 동부, 필리핀, 태국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여름에 찾아드는 철새이다. 논, 개울, 하천 등의 습지에서 서식하고, 침엽수 또는 활엽수 교목림에서 다른 백로류와 함께 집단번식하며, 청록색의 알을 3~5개 낳는다.

한국에서 서식하는 백로류, 왜가리류 중 몸집이 가장 크며, 배는 흰색이고, 가슴 옆구리에는 회색 줄무늬가 있으며, 머리는 흰색이나 검은색 줄이 눈에서 뒷머리까지 연속되어 길고 우아한 댕기를 이룬다. 날 때는 목을 S자 모양으로 굽히며, 부리와 다리는 계절에 따라 황색에서 핑크색까지 띤다.

새매 *Accipiter nisus*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 지역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흔한 텃새이다. 평지, 도시 교외 등지에서 서식하다가 번식기에는 우거진 숲 속에서 서식하며, 높이가 4~8m 정도의 잡목림 나뭇가지에 등지를 틀고 5월경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다자란 수컷은 등이 석판회색이며, 윗머리에 흰색반점이 있고, 배는 흰색으로 전면에 적갈색의 가루무늬점이 있다. 암컷의 등은 갈색이고, 배는 흰색바탕에 암갈색 줄무늬가 있다.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유럽,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지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텃새이다.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않으며, 새매나 말뚝가리가 지은 둥지나 하천의 흙벽 또는 암벽의 오목한 곳에 흰색바탕에 어두운 적갈색 무늬가 산재한 알을 4~6개 낳는다. 먹이를 찾으면서 공중을 선회하며, 일시적으로 정지 비행하는 습성이 특징이다. 수컷은 밤색의 등에 갈색반점이 있고, 황갈색의 하면에는 큰 검은색 반점이 흩어져 있으며, 머리는 회색, 꼬리는 회색에 넓은 검은 띠가 있고, 끝부분은 흰색이다. 암컷의 등은 진한 회갈색에 암갈색의 가로줄무늬점이 있고, 꼬리는 갈색에 암색띠가 있다.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해안 도서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서 암초와 풀밭 등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며, 올리브색, 옅은 회갈색, 옅은 청록색에 어두운 갈색과 잿빛 쥐색반점이 산재하는 알을 2~4개 낳는다. 갈매기 중에서 유일하게 흰색의 꼬리를 가로지르는 검은색의 넓은 띠가 있고, 다자란 것의 머리와 목 그리고 아랫면은 흰색이며, 부리는 진황색, 부리 끝은 적색과 검은색의 반점이 있다. 등은 중간 회색이며, 다리는 황색이고 날 때는 검은색의 날개 끝에 흰색 반점이 보인다. 새끼의 복부는 흰색이나 꼬리를 가로지르는 검은색 띠가 있어 다른 갈매기의 어린 새끼들과 구별된다.

흑비둘기 *Columba janthina* TEMMICK. 천연기념물 제215호

흑비둘기는 야생비둘기 무리 중 가장 큰 새로 한국, 일본 남부,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울릉도에서는 검다 하여 ‘검은비둘기(흑구:黑鳩)’ 또는 울음소리 때문에 ‘삐꿈새’ 라고도 부른다.

몸길이는 32cm 정도로 암수 동일하며, 몸 전체가 광택이 나는 검은색이다. 부리는 검은 빛을 띤 회색이고, 다리는 붉은색이다. 바닷가나 크고 작은 섬에서 서식하며 후박나무 숲이나 동백나무 주변에서 산다. 나무구멍, 풀 숲의 암석 위에 얇은 접시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1개의 알을 낳으며 주로 나무의 열매나 꽃을 먹는다.

두견 *Cuculus poliocephalus* Latham 천연기념물 제447호 (2005.03.17)

수컷의 머리와 윗면 암회색이다. 턱밑, 멱, 윗가슴은 잿빛으로 멱 중앙은 다소 옅은 색이고 각 깃털 끝은 황갈색을 띤다. 아랫가슴과 배는 흰색으로 드문드문 검은색의 가로띠가 있

다. 아랫배와 아래꼬리덮깃은 황백색이고, 위꼬리덮깃은 다소 진하며 푸른색을 띤다. 꼬리는 검은색으로 병어리뼈꾸기와 같은 흰색의 얼룩무늬가 있고 다소 넓다. 꼬리깃은 근사종보다 가늘다. 날개는 암갈색으로 날개깃에는 근사종과 같은 흰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작은날개덮깃만은 등과 같은 색이다. 아랫날개덮깃은 황백색에 검은색의 가로띠가 있다.

암컷은 수컷과 비슷하나 윗면의 잿빛은 다소 옅은 색이고, 멍과 가슴은 적갈색을 띤다. 적색형 암컷은 병어리뼈꾸기의 적색형 암컷과 흡사하나 머리와 뒷목의 바탕색은 옅은 색이고, 허리와 위꼬리덮깃의 바탕색은 짙은 붉은 밤색을 띤다. 윗면의 검은 띠는 옅은 색으로 갈색을 띠며, 머리와 뒷목의 검은 띠는 폭이 좁고 거의 검은 띠가 없을 때도 있다. 또한 턱밑과 멍의 바탕색은 황갈색과 적갈색이 있다. 부리는 빨빛 검은색으로 기부는 황색이고, 홍채는 갈색이다. 눈테와 다리도 황색이다.

노랑때까치 *Lanius cristatus*

암컷과 수컷 모두 이마에서 머리꼭대기까지 잿빛이다. 기타 몸 윗면은 잿빛에 갈색을 띠며, 등과 어깨는 황색을 띤 잿빛 갈색이 된다. 눈선은 검은색이며, 눈썹선은 잿빛 흰색이다. 턱밑, 턱 아래 부위는 흰색이며, 기타 몸 아랫면은 크림색이 도는 황갈색이다. 2~3월에 여름 깃으로 털갈이를 하지만 깃털의 색은 겨울 깃과 동일하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섬개개비 *Locustella pleskel*

섬개개비는 참새크기로서 몸길이 약 26cm이다. 몸의 윗면은 올리브색을 띤 갈색이고 허리와 위 꼬리 덮깃은 누런 갈색이다. 바깥 꼬리 깃 끝에 잿빛이 도는 흰색 띠가 있다. 아랫면은 크림색이 도는 흰색이다. 알락꼬리쥐발귀에 비해 등 · 꼬리 · 옆구리에 붉은 기가 거의 없다. 부리가 훨씬 크고 길다.

동박새 *Zosterops japonica*

암컷과 수컷 모두 몸 윗면이 황색을 띤 녹색이다. 눈꺼풀에는 흰색의 가는 깃털이 뽀뽀하게 나있어 둥근 고리 모양을 형성한다. 귀깃과 목 옆은 황색을 띤 올리브 녹색이다. 턱밑과 턱 아래 부위는 황색이고, 가슴과 옆구리는 옅은 황갈색을 띤 포도색이다. 배는 어두운 흰색이며, 아래꼬리덮깃은 옅은 황색이다. 부리는 가늘고 부리 등은 다소 굵었으며, 끝은 뾰족하다. 아랫부리의 뒷부분은 푸른색을 띤 잿빛이고, 그 외에는 갈색이다. 다리는 푸른색을 띤 잿빛이다.

참고문헌

1.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2012.12.24
2. 국립생물자원관, 김병직, 2012.12.24
3. 문화재청 www.cha.go.kr
4. 『한국(韓國)의 희귀(稀貴) 및 위기동식물(危機動植物)』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5. 『한국(韓國)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조류편(鳥類篇)-』 (원병오, 문교부, 1975)
6. 야생화 도감(봄, 여름, 가을), 정연옥외 3명 푸른행복, 2010
7. 서울대공원 grandpark.seoul.go.kr
8. 국가자연사 연구종합정보 시스템 naris.go.kr